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東洋古典 現代化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일시 : 2013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전통문화연구회

후원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협찬 : (사)한국어문화 반디앤루니스 (사)한자교육진흥회

◆ 인 사 말 씀 ◆

낙엽이 물들어가는 가을,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東洋古典 現代化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2013년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회는 1988년 창립 이래 東洋古典 現代化의 기치 아래 동양학과 한국학 研究와 한국고전 翻譯의 先決과제인 동양고전을 翻譯하여 왔으며, 교육으로는 On/Off-Line에 두루 걸쳐 平生教育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情報化 시대에 발맞춰 한글한자자동변환프로그램과 동양고전어휘정보망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번역과 교육에 종사하여 오신 元老 漢學者와 新進學者의 協同研究翻譯에 대한 勞苦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고전 현대화에 대한 政府의 지대한 關心과 支援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指導鞭撻하여 주신 學界 教育界 文化界 인사 여러분께 심심한 謝儀를 표합니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본회의 그간 사업성과와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점검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시대의 시급한 문화적 과제인 한글과 漢字의 語文 正常化를 위하여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와 공동으로 한자교육의 수기·현장연구보고·논문 공모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발표회를 계기로 어문정책 正常化와 동양고전 現代化가 동력을 얻어 21세기 先進文化韓國 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先進미래를 지향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지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내 평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3년 11월 일

전 통 문 화 연 구 회

상임고문 李漢東
이사장 趙富英
회장 李啓冕

◆ 행사일정 ◆

- 사회 李昞昊(성균관대 교수)

14:00 국민의례

14:00~14:10 인사말 | 李漢東(전 국무총리, 본회 상임고문)

14:10~14:25 수기논문 시상 | 심사평 鄭愚相(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상임공동대표)

14:25~14:35 경과보고 | 李啓晷(본회 회장)

14:35~14:45 감사장 및 공로장 증정

14:45~14:50 축사 | 李澤徽(전 서울교대 총장)

14:50~15:00 기조연설 | 宋載邵(성균관대 명예교수)

15:00~17:30 주제발표

- 동양고전 翻譯의 현대적 의의 - 論語 번역을 중심으로 | 田好根(경희대 교수) … 7
- 東洋古典 教育의 現況과 展望 | 鄭載喆(단국대 교수) …………… 31
- 뇌과학으로 본 한자의 특성 | 趙長熙(가천대 석학교수) …………… 47
- 한글漢字 자동변환기술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玉哲榮(울산대 교수) ………… 51
- 동양고전語彙情報化의 방법 및 활용 방안 | 金炫(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73

17:30 폐회 및 다과회

◆ 전통문화연구회 연혁 ◆

- 1988년 ■ 東洋古典國譯 착수
- 古典研修院 개원 (~현재)
- 사단법인 인가 - 초대회장 安炳周 취임
- 1989년 ■ 기초한문교재 - 《四字小學》 간행
- 1990년 ■ 《懸吐完譯 論語集註》 간행
- 1991년 ■ ‘현토완역 四書集註’ 완간
- 1994년 ■ ‘東洋文化叢書’ 간행(~현재)
- 관련단체와 함께 漢字漢文教育 대정부 건의
- 1996년 ■ 초대이사장 安炳周, 3대회장 李啓晁 취임
- 1998년 ■ 창립 10週年 기념식 및 ‘현토완역 四書三經’ 完刊 출판기념회
- 2000년 ■ 사이버書堂 개설 - cyberseodang.or.kr
-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금강산유람기》
- 2001년 ■ 「東洋古典譯註事業」 착수 (교육부 국고보조)
- 2002년 ■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 2004년 ■ 제3대 李澤徽 이사장 취임
- 2005년 ■ 국어기본법 문제집 연구 착수(~현재)
- 2006년 ■ ‘교수신문’ 고전 우수 번역서 선정
 - 《懸吐完譯 論語集註》 《현토완역 孟子集註》 《현토완역 周易傳義(上·下)》
- 공익성기부금 면세대상단체 선정
- 2007년 ■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학술대회 개최
- 제4대 申斗淳 이사장 취임
- 2008년 ■ 창립 20주년 기념 ‘한자교육 관련 수기·논문 시상 및 강연회’ 개최
- 李漢東 상임고문 추대, 제5대 宋載邵 이사장 취임
- 2010년 ■ 동양고전종합DB 구축 및 서비스(~현재)
- 2011년 ■ 국역 및 어문정책 학술발표회 개최
- 교보문고 등 ‘ebook’ 보급
- 2012년 ■ ‘十三經注疏 및 懸吐 연구’ 학술발표회 개최
- 제6대 趙富英 이사장 취임
- 국어기본법 등에 대한 憲法訴願審判請求書 제출
-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 2년연속 최우수(A등급) 선정 - 교육부
- 2013년 ■ 동양고전語彙情報化사업 추진
 - ‘동양고전어휘情報網’ 구축, ‘한글漢字自動變換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書堂 Mobile 서비스 개설
- ‘선진문화한국 VISION 2030’ 수립
- ‘創立 25週年 기념’ 학술발표회 및 한자교육 手記·論文 시상식 개최

◆ 전통문화연구회 현황 ◆

1. 일반 현황

- 가. 설립일 : 1988년 4월 30일
- 나. 임원 : 이사 24인, 감사 2인
- 다. 강사 및 역자 : 81인
- 라. 상근직원 : 12인
- 마. 회원 현황 (2013년 11월 1일 현재)

구 분	정회원	준회원	온라인회원	계
인 원	200	11,098	60,907	72,205

2. 사업 실적

- 가. 동양고전국역사업 및 출판사업 : 98종 146책 간행
 - 1) 동양고전역주사업(국고보조) - 동양고전역주총서 : 22종 67책
 - 2) 동양고전국역총서, 한자한문교육총서, 동양문화총서, 문화문고 등 : 77종 92책
- 나. 동양고전교육사업
 - 1) 고전연수원 : 1988년부터 119기 32,500여명 교육
 - 2) 사이버서당 및 한문연수원 : 2000년부터 60,907명 교육
- 다. 동양고전정보화사업(국고보조)
 - 1)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 27종 49책
 - 2)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50만 어휘, 200만 어절, 한글한자자동변환프로그램
- 라. 한자교육국민운동 :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업무 주관, 국어기본법 위헌 청구
 - 手記·論文公募 2회, 어문정책 및 한교운동 자료집 15책
- 마. 연구사업 및 새문화진흥운동 : 학술발표회 4회, 회보 《전통문화》 통권 36호

3. 사업 계획

- 가. 동양고전 국역 계획 - 150종 500책
 - 十三經注疏 譯註 特別 計劃
- 다. 한자문화 평생교육 계획 - 3차 5개년(2028년) 한자 1300만명, 한문고전 143만명 교육
 - 사이버書堂, 사이버書院, 古典研修院
- 나. 동양고전정보화사업 계획
 - 1)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 150종 500책
 - 2)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동양고전語彙情報網 구축, 한글漢字自動變換프로그램 개발
- 라. 한자교육국민운동 추진계획 - 어문정책 연구와 학술발표 및 국어기본법 위헌 청구
- 마. 연구사업 및 새문화진흥운동 : 학술발표, 雅號부르기운동, 會報간행 등

동양고전 翻譯의 현대적 의의- 論語 번역을 중심으로¹⁾

田好根(경희대 교수)

1. 서론

이 글은 우리의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유가철학 원전, 그 중에서도 논어의 번역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해보고 그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이 글은 전체를 ①전통시기의 논어 번역, ②대한제국 말기 및 일제강점기의 논어 번역, ③광복직후의 논어 번역(광복이후에서 60년대까지), ④60년대의 논어 번역(61년~70년), ⑤70년대의 논어번역(71년~80년), ⑥80년대의 논어 번역(81년~90년), ⑦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논어 번역(91년~현재) 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2. 전통시기의 유가철학 원전 번역

『논어』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삼국사기』에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을 세워서 자제들을 교육했다(立太學 教育子弟)’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늦어도 372년경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1576년(조선 선조 9년)에 이르러 이이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언해하기까지 1000년에 가까운 장구한 기간 동안 논어 번역(광의의 번역, 현토 및 언해 포함)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²⁾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조에 접어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권근의 삼경구결, 세조대의 사서와 삼경에 대한 구결이 기록으로 전해질 뿐이고, 세종대에 이르러서도 집현전에서 유교경전의 번역 사업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간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세종대의 한글창제는 유가문헌은 물론이고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문헌을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 혁명적인 조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전후한 시기에 『운회옥편』을 비

1) 이 글은 필자가 그 동안 발표한 글 4종을 요약한 것으로 4종의 글은 다음과 같다. <온고지신과 술이 부작의 사이에서-논어번역본에 대한 검토>, 오늘의 동양사상, 2001.09 / <유가철학 원전 번역을 통해 본 우리의 근대> 시대와 철학, 2003.12 / <광복이후 최근까지의 유가철학 원전 번역-논어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005.03 / <최고의 고전번역을 찾아서-논어>, 생각의 나무, 2006.07

2) 『삼국사기 열전』에 이두의 집대성자로 알려진 신라의 설총이 ‘방언으로 구경을 읽었다(以方言讀九經)’고 하는 기록이 효시이고, 조선 후기의 鄭元容이 편찬한 『文獻撮要』에 고려말 조선초기의 정몽주와 권근이 경서에 구결을 붙였다는 기록이 있다.

릇한 사전류의 편찬과 구결, 석의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번역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는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유가문헌의 번역은 성종대 이후 사림파가 중앙으로 진출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성리학 이념을 정치에 적용하는 것을 중시한 이들 사림들은 성리학 기본서, 곧 유가문헌의 전파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성과는 초보적 형태의 번역이라 할 언해로 이어졌다.

유가문헌에 대한 최초의 언해 성과는 소학언해와 언해사서로 나타났다. 1585년에 왕명에 의해 校正廳이 설치된 뒤, 이듬해에 『소학』과 사서의 언해가 완료되었는데 이 일에는 정구, 최영경, 한백겸, 정개청, 정철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이는 이와는 별도로 그 이전부터 언해 작업에 착수하여 『四書栗谷諺解』를 완성하였다.

2-1. 朋이 遠方으로브터오리이시면또 亨樂흥디아니라(四書栗谷諺解)

『사서율곡언해』는 1576년(선조 9년)에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의 사서를 선조의 지시를 받아 이이가 언해한 책이다. 『대학율곡언해』와 『중용율곡언해』는 각각 1권 1책이며, 『논어율곡언해』는 4권 4책, 『맹자율곡언해』는 7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조는 처음 柳希春에게 언해를 저술하게 하였으나 유희춘이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이이를 책임자로 천거하였다. 선조는 그의 천거를 받아들여 이이에게 九經을 언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율곡년보에 의하면, 이이는 선조의 명령이 있기 이전에 이미 대학언해를 완성했으며, 유희춘이 성혼을 통해 그것을 입수해보고 선조에게 천거했기 때문에 선조가 이이에게 구경을 언해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이의 율곡언해는 당초 국가적 사업과 상관없이 이이가 스스로의 뜻으로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이는 1584년(선조 17년)에 죽을 때까지 사서에 대한 언해만을 완성했으며, 오경에는 손을 대지 못하여 이를 간행하지 못하고 필사본만이 후세에 전하다가 1749년(영조 25)에 洪啓禧가 필사본을 입수하여 校書館에서 간행하였다. 결국 율곡언해는 관본사서언해보다 먼저 완성되었으나 간행은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최초의 유가문헌 번역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맨 앞에 한문으로 본문을 표기하고 각 한자 뒤에 한글로 음을 붙였으며 행을 달리하여 언해를 붙이고 있는데 언해를 표기한 부분은 한 칸을 띄워서 경문의 하위에 종속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논어언해의 학이편 1장의 언해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어 학이편 제1장〉

원문 : 子_즈曰_왈學_혹而_이時_시習_습之_지면不_불亦_亦역說_說열乎_乎호아

언해 : 子_즈ㅣㄱㄹㅅㅅㅅㅅ學_혹 ㅎ아時_시로習_습ㅎ면또 ㅎ說_說열ㅎ디아니라

원문 : 有_유朋_봉自_自遠_遠方_方來_來리면不_불亦_亦역樂_樂락乎_乎호아

언해 : 朋_봉이遠_遠方_方으로브터오리이시면또 ㅎ樂_樂락ㅎ디아니라

원문 : 人_인不_不知_知디而_而이不_不慍_慍온이면不_不亦_亦역君_君군子_子즈乎_乎호아

언해 : 人_인이아디몰 ㅎ야도慍_慍온티아니면또 ㅎ君_君군子_子ㅣ아니라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율곡언해는 체제면에서 원문을 표기하고 있는 부분에 한글을 이용한 구결이 붙여져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당연히 본래의 논어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기존 구결 작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결은 비록 두 줄로 표기하여(문서 편집의 어려움 때문에 이 지면에서는 한자의 음을 한 줄로 단 부분과 토를 두 줄로 단 차이점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한자 원문의 음을 한 줄로 표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원문과 대등한 위치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토를 원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내용을 삽입한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우리의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 문자를 통용할 수 없다는 한글창제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며 유가문헌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결은 고립어인 한자를 첨가어화 함으로써 원문의 난해함을 덜고, 우리말의 장점을 살려 원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언해는 뒤이어 간행된 관본언해에 비해 오류가 적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확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한문이 아닌 우리말로 번역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첫 번째 문장의 첫 구절을 언해한 ‘子_즈ㅣㄱㄹㅅㅅㅅㅅ學_혹 ㅎ아時_시로習_습ㅎ면또 ㅎ說_說열ㅎ디아니라’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은 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문장부호의 역할에 해당하는 ‘ㄱㄹㅅㅅㅅㅅ’와, 용언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不’자와 의문을 표시하는 허사인 ‘乎’자를 해석한 ‘아니라’를 제외하면 우리말로 옮겨진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의 언해 ‘朋_봉이遠_遠方_方으로브터오리이시면또 ㅎ樂_樂락ㅎ디아니라’의 경우에서도 來 한 글자만 번역되었으며, 세 번째 구절 ‘人_인이아디몰 ㅎ야도慍_慍온티아니면또 ㅎ君_君군子_子ㅣ아니라’와 세 번째 문장 ‘子_즈ㅣㄱㄹㅅㅅㅅㅅ言_言을巧_巧교히ㅎ며色_色식을습

10 東洋古典 現代化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령히호는이仁인이저그리니라'에서도 각각 知자와 鮮자만 우리말 '아다'와 '적다'로 번역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깃브다, 즐겁다, 벗, 사람 등 우리 고유어가 당시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는데 그런 어휘를 쓰지 않고 각각 說, 樂, 朋, 人으로 원문을 그대로 쓴 것은 아마도 원문의 의미를 손상 없이, 최대한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듯하다.

따라서 율곡언해의 경우 언해의 목적이 원문을 풀이하거나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다가보다는 어디까지나 원문을 익히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子즈ㅣㄱㄹ샤디君군子즈ㅣ重둥티아니면威위티몬호고學혹도固고티몬호니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논어의 원문 '學則不固'를 주희의 논어집주에서 '學亦不固'로 해석한 것을 따라 정확하게 '學혹도固고티몬호니라'로 번역하고 있는데서 관본언해에 비해 율곡언해가 정확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율곡언해의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율곡언해라고 해서 오류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맹자언해의 경우 '私淑艾'의艾는 '예(父)'로 읽어야 할 것인데, 음을 애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따라서 율곡언해의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한글을 이용한 유가철학 원전번역이었으며, 처음의 성과물인 대학언해가 국가적 사업과는 관련없이 이이 스스로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2. 버디 遠원方방으로브터오면또호즐겁디아니호랴(官本七書諺解)

율곡언해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관본칠서언해는 1585년 선조의 명령을 받아 정구, 최영경, 한백겸, 정개청, 정철 등이 참여하여 1585부터 1593년에 걸쳐 언해한 것이다. 관본칠서언해 중 논어언해의 몇 부분(율곡언해와 동일한 부분)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논어 학이편 제1장〉

원문 : 子즈ㅣ 曰왈學혹而시時시習습之지면 不블亦역說열乎호아

언해 : 子즈ㅣ ㄱㄹ샤디學혹 호고時시로習호면또호깃브디아니호랴

원문 : 有유朋붕이自즈遠원方방來리면不블亦역樂락乎호아

언해 : 버디 遠원方방으로브터오면또호즐겁디아니호랴

원문 : 人인不블知디而시不블慍온이면 不블亦역君군子즈乎호아

언해 : 사람이아디몬호야도慍온티아니호면또호君군子즈ㅣ아니가

2-3. 전통시기 언해의 성과와 한계

율곡언해와 관본언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번역된 체제나 내용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원문의 핵심어인 仁, 孝, 弟, 謹, 信 등이 음만 달려 있고, 우리 고유어로 환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발음의 정확한 표기만으로도 유가문헌의 암송을 학습의 일차적 방법으로 채택했던 당시 사대부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들 언해본을 참고하면 원문을 아는 학자들에게 직접 배우지 않더라도 원문의 정확한 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옥편을 뒤지거나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율곡언해와 관본언해는 당시 사대부들의 유가문헌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유가문헌을 이해하는 학자들의 저변확대에도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 언해는 모두 유가문헌을 텍스트로 보기보다는 성인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진 신성한 경전으로 대했으며, 그로 인해 유가문헌은 학습의 대상은 될지언정 계몽의 수단이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 수단이 될 수는 없었다. 더욱이 학습의 대상 또한 한문문자를 아는 사대부 계층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언해의 역사적 의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불경의 언해, 그리고 같은 유가문헌이라 하더라도 소학의 언해에서 우리 고유어가 많이 활용되고 신속히 간행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도 계몽적 의미가 약하다.

이처럼 전통시기의 학자들이 언해를 어렵게 여겼던 이유는 고문의 난해함이라는 텍스트 자체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언해를 어렵게 여기는 신중한 태도에서 비롯된 듯하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율곡언해와 관본언해에서 우리말 번역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우리 고유어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완전히 번역했을 경우, 경전의 무오류성에 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언해작업이 늦어지고, 언해의 풀이 정도도 소극적인 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전의 함의를 해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시한 당시 학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3. 대한제국 말기 및 일제강점기의 유가철학 원전 번역

구한말 이후 번역된 유가철학 문헌의 번역본 또는 언해본으로 필자가 입수한 것은 1909년 8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 소년논어, 1920년대에 유교경전강구소에서 신면휴 외

26인이 참여하여 간행한 유교경전언역총서(1920년대), 1922년에 지송욱이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간행한 비지구해 원본맹자 상하, 그리고 1930년대 문언사에서 이범규 등이 간행한 言解四書의 네 종류이다. 이 중 1922년에 초판이 간행되고, 1927년에 재판이 간행된 지송욱의 비지구해 원본맹자 상하는 原本孟子라는 제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문의 언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기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고, 또 번역보다는 한문학습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류의 번역서만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3-1. 남이 알고 나를 멀리 차짐도 조호거니와...(少年論語)

少年論語는 1908년 11월 1일자로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종합잡지 『소년』의 제 2년 7호부터 제2년 10호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少年論語(1):少年 총9호(제2년 7호), 8월호(1909.8.1간행), 48쪽
- 少年論語(2):少年 총10호(제2년 8호), 9월호(1909.9.1간행), 26쪽
- 少年論語(3):少年 총11호(제2년 9호), 10월호(1909.10.1간행), 40쪽
- 少年論語(4):少年 총12호(제2년 10호), 11월호(1909.11.1.간행), 124쪽

소년잡지가 당시 19세의 소년이었던 최남선에 의해 창간된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2년 7호부터 제2년 10호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된 소년논어의 작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혀진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소년논어의 저술 동기나 의도 등에 대해 잡지의 어느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소년논어의 작자는 물론 작자의 의도나 논어 원문의 선별 기준 등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제2년 제10호에 실린 第壹蓍紀念辭에서 최남선은 소년 창간 일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가난 세월은 짧으기도하다 어늬덧 이를 내인뒤로 일년의 월일을 지내엿고나. 여러 가지 곤난과 싸호고 여러 가지 장해를 격그면서 일년스동안 이를 부지해온 희망은 무엇이더뇨. 일언으로 폐하면 우리 보천하소년형제에게 신대한에 드러가난 우리들의 행복이 웃더케큰 것을 말코자함이러니라. 그러면 나는 이 일년이란 도막에 서서 한번 그동안 공과를 고시 하야보리로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소년을 창간한 이래 지나온 일년을 회고하면서 소년잡지

의 창간 목적과 그 이후의 성과를 스스로 잡지의 집필인인 최남선이 독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먼저 본지는 한 집필인의 손으로서 된것과 이것이 반년이 넘은뒤까지도 겨우 삼사십의 독자에게 넓힘을 말호리라.

이와 같이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최남선 개인이 잡지의 내용 모두를 집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년논어의 저자도 최남선일 수밖에 없다. 다만 소년잡지의 다른 부분에서 최남선이 서당에서 글 배운 시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간간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방식의 서당교육을 받은 최남선으로서는 유가철학 원전인 논어의 번역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최남선이 스스로 쓴 글을 보면 소년의 최초독자는 불과 6명에 지나지 않았고, 일년이 지나서 200명에 이르는 독자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소년은 제3년 2권부터 이광수와 홍명희의 글도 신게 되어 명실공히 종합잡지의 면모를 갖추고 지면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제3년 8권이 발매정지와 함께 정간을 당하고, 3개월 뒤 일시 복간되었다가 제4년 2호, 통권 23호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발행 정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은 소년논어 1회의 내용 전문이다.

가장 高貴하고 또 恒常 健實한 敎訓을 받으려하거든 論語를 넓으라.

○ 배화가지고 장 익히면 그것 조흐지아니(하)오. 또 남이 알고 나를 멀리 차짐도 조흐거니와 設或 모르기로 무엇이 不足할 것잇소.

〈註〉工夫란것은 나를 爲하야 하난것이오 남재문에 하난 것 아니란말삼.

○ 말 남신남신 잘하고 남의 脾胃나 살살 잘마추난 사람에 사람다운 사람 업습디다.

〈註〉제속은 조금도 업고 남의 얼굴보아 제 빗을 짓난 사람을 警戒하신 말삼.

○ 工夫란 무엇이오 行實이 압섭니다 사람의 子弟가 되얏거든 집안에 잇거니 밋게 나오거니 어륜을 잘 섬기며 每事를 다 삼가고 다 밋부게하며 아모사람이거니 다 사랑하되 그中에서도 착한 사람 나보담 나흔 사람을 갓잡게하야서 이런일을 다 넉넉히 行한 뒤에서 工夫를 하시오.

〈註〉工夫만 한다고 사람 되난 法이 업단말삼.

○ 사람이 重厚하게 몸을 가져야 남이 나를 점잔케 보난 法이며 工夫를 하여야만 固陋치 아니한 법이며(朱子の 註를 따르진댄 學則不固는 사람이 重厚치 아니하면 工夫를 하여도 堅固치 못하단 말이라 하얏더라) 眞實하여야만 잘못함이 업슬것이며 나보담 나흔 사람만 사귄것이며 잘못된일이 잇거든 그저 고치되 조금도 躑躅치 마르시오.

〈註〉 사람이 제몸 다사리는 法을 말삼하심.

知覺업난 學生들은 이러한 金玉갓흔 말삼을 되지못한 글보기에 도라보지안터라.

2회부터 4회에 걸친 소년논어의 전문은 신지 않았지만, 1회의 연재분만 보아도 소년논어가 완역이 아닌 부분역임을 알 수 있다. 논어의 원문 중 소년논어에 포함된 번역문은 학이편의 전체 16장 중 6개장, 위정편의 전체 24장 중 12개장, 팔일편의 전체 26장 중 1개장이다.

이상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 최남선은 소년논어를 통해 논어를 팔일편까지 번역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완결된 학이편과 위정편의 번역이 편내의 모든 문장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번역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최남선이 애초부터 논어의 완역을 기획한 것은 아니며 논어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선역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취사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번역된 내용과 번역에서 제외된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학이편의 경우 빠진 부분은 10개장이며 그 중 공자의 말은 2개, 나머지 8개장은 제자들의 말이다. 번역된 6개장은 모두 공자의 말을 기록한 것이다. 위정편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번역된 문장은 대부분 공자가 스스로 한 말을 기록한 문장이고, 다른 제자들과 대화한 내용은 거의 생략되어 있다. 다만 위정편 제4장이 번역에서 제외된 것은 뜻밖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남선은 공자가 스스로 직접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을 가장 중시하여 대부분을 번역했으며, 제자를 비롯 노나라 애공이나 계강자, 맹무백 등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한 공자의 말과, 제자들이 한 말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자의 말을 기록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제4장, 제9장)에 해당하거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제16장)은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년논어가 완역이 아니라 선역으로 진행된 것은 최남선이 생각하기에 당시의 소년지식인들이 필독할 가치가 있는 근대적 의미의 지식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최남선에게는 논어전체가 근대적 의미로 파악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논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가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번역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첫째, 원전송배주의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소년논어는 원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미와 맥락을 따라 내용을 변형하기도 했다. 학이편 1장이나 3장의 번역은 번역문만으로는 원문을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변형의 정도가 심하다. 이는 유가문헌을 연구하는 전문지식인의 입장에서는 단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원문의 신성성을 떨쳐버리고 주체적인 의미의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최남선의 이러한 의도는 소년논어에 아예 원문을 병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원문보다 번역문이 더 중시된 최초의 번역이라는 점에서 소년논어의 번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소년논어는 단순히 한문문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삶의 문맥을 활용하여 번역했다는 점이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 대부분은 논리적 입증의 대상이나 형이상학적 규정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실린 생활훈이다. 논어에 나온 수많은 삶의 자취는 공자의 삶을 추적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통찰할 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수 천 년의 간격을 두고 이와 같은 삶의 기록을 해독하는 데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번역하는 문자와 어휘의 한계를 넘어, 적절한 삶의 문맥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일은 고전을 많이 섭렵한 학자보다 때로는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이편 1장을 ‘배화가지고 장 익히면 그것 조흐지아니(하)오. 쏘 남이 알고 나를 멀니 차짐도 조흐거니와 設或 모르기로 무엇이 不足할 것잇소.’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배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지리멸렬한 논의를 단번에 넘어서는 삶의 통찰이 엿보인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동감 있게 번역하는 일은 탁월한 선각자적 통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소년논어의 번역은 뛰어나다.

셋째, 소년논어는 대중어를 이용하여 번역했다는 점에서 생동감이 뛰어나다. 학이편 3장의 巧言令色 鮮矣仁을 ‘말 남신남신 잘하고 남의脾胃나 살살 잘마추난 사람에 사람다운 사람 업습디다’로 번역한 표현은 어렸을 때 동네의 할머니에게서 들은 말과 신기할 만큼 닮아 있다.

이처럼 소년논어는 원문의 난해함을 실제 당시의 대중들이 즐겨 썼을 법한 용어로 치환하여 번역함으로써, 고대의 어휘를 그에 해당하는 당시의 어휘로 단순 대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미와 맥락이 통하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대중들의 언어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비록 간간히 한자어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거의 완전한 형태의 우리말 번역이라고 할 만하다. 더욱이 仁을 ‘사람다움’으로 표현한 예는 그 이전에는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진보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중어의 사용은 신분 질서를 깨트리고 하층민들까지 삶의 동반자로 인정한 자취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좀 더 후기에 속하는 『개벽』이나 『조선지광』 등 진보적인 성격의 잡지 속에 유가철학 원전이 인용되어 있지만 대부분 원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글의 제목까지 유가철학원전의 원문이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년논어의 진보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넷째, 소년논어는 계몽의 차원을 넘어서 독자를 대화의 상대로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전적 권위를 벗어던지고 다수 대중의 삶을 존중하는 근대적 가치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전래의 언해본은 물론이고 동시대나 이후의 상당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논어번역이 ‘니라 니라’로 이어지는 현토나, 가르침을 베푸는 일방적인 표현의 번역문을 통해 성인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에 비해, 소년논어는 일시에 이 같은 태도를 버리고 독자에게 ‘아니하오, 업습니다, 압섭니다’와 같은 존칭어를 씌으로써 권위적인 가르침을 넘어 삶에서 우리나라는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번역이며,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이상적인 형식의 번역이라 할 만하다. 특히 논어에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이전은 물론 이후의 번역서가 지적해 내지 못한 통찰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소년논어는 번역문을 통해 주자학 일변도의 학술경향에서 탈피하였다. 예를 들어 학이편 제8장의 君子不重則不威를 주희의 집주에 의거하지 않고 ‘工夫를 하여야만 固陋치 아니한 법이며’로 번역하였다. 아울러 ‘(朱子の 註를 찢르진댄 學則不固는 사람이 重厚치 아니하면 工夫를 하여도 堅固치 못하단 말이라 하얏더라)’고 괄호 속에 주자의 집주를 따를 경우의 번역을 병기함으로써, 주자학으로부터 굳이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조차 없는 자유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균형감각을 갖춘 번역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소년논어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논어번역이 선역이든 완역이든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번역문을 통한 원전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문의 뜻을 손상시키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년논어의 뛰어난 번역은 유가문헌의 근대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소년논어는 동시대나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언해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간행된 논어번역서를 압도한다. 예를 들어 1927년(소화 2년) 일본의 오마치 게이게쓰(大町桂月)가 번역하고 동경의 지성당서점에서 간행한 詳解全譯 漢文叢書 論語·大學·中庸의 학이편 제3장 번역은 ‘巧言令色 鮮いかな仁’으로 한문을 제외한 일본 문자 표기는 ‘いかな’의 단 세 글자일 뿐이다. 거의 번역이랄 것도 없는 수준이다.

3-2. 벗이 잇서 먼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라(諺譯叢書)

소년논어 이후 간행된 유가철학 원전 번역은 1922년부터 1923년에 이르기까지 유교경전강구소에서 발행한 언역총서이다. 그 중 諺譯論語는 大正 11년(1922년) 4월 4일에 발행되었는데 유교경전강구소의 申冕休 외 21인이 집필했다.

언역논어는 전래의 언해본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자세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첫 번째 문장의 번역 ‘子_즈ㅣ 孔_으샤_디, 비_호고, 쎄_쎄로, 익_히면, 쏘_한깃부지, 아_니하_라.’에서 전통시기의 언해본에는 ‘時_로’로 언해된 것을 주희가 ‘時_時’의 뜻으로 집주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쎄_쎄로’로 언해함으로써 정확도 또한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간행된 비지구해 원본맹자가 원문에 대한 언해만 싣고 있는데 비해서도 이들의 작업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적인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원문의 번역에 해당하는 훈두가 전래의 언해본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유사하며, 자해나 의해의 내용 또한 주희집주의 내용을 요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표현에서도 주희집주의 표현을 그대로 따와서 쓰는 등 새로운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벗이 잇서 먼곳으로부터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라.(言解四書)

언해사서는 1932년 8월에 문언사에서 간행되었으며, 역자는 이범규로 되어 있다. 言解論語는 소화 7년(1932년) 8월 10일에 간행되었다.

언해논어에 실려 있는 ‘언해사서 간행에 대한 유력’에 의하면 이에 참여한 사람은 이범규 외 10명이다. 언해사서는 전통시기의 언해와 언역총서가 모두 한문을 큰 글자로 기록하고 한문의 발음을 표시하는 한글을 작은 글자로 옆에 병기하고 있는데 비해, 언해사서는 반대로 한글을 큰 글자로 표기하고 한문을 옆에 작은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번역은 과거 다른 언해와는 달리 번역문, 곧 한글로 경문의 뜻을 이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 간행된 언역총서의 번역이 원전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면, 이 책은 번역된 부분만 단독으로 읽힐 것도 기대하고 착수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이 ‘언해사서 예언’에서 ‘누구든지 조선문만 통달하면 능히 경전의 뜻을 알게 하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체제이다.

언해논어는 경문보다 언해된 글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경전의 신성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언역논어와 마찬가지로 해설은 친

절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근대적 번역물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4. 대한제국 말기 및 일제강점기 유가철학 원전 번역의 성과와 한계

이 시기의 유가철학 원전번역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물은 단연 소년논어라고 할 수 있다. 소년 논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가문헌번역의 근대적 표현이라고 할 만큼 기존의 언해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지속되지 못했으며, 계승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발굴이나 소개조차 되지 못했다.

소년논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가철학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번역이라고 할 만하다.

소년논어는 원문의 신성성을 넘어서는 주체적인 의미의 번역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삶의 문맥을 활용하여 번역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 통찰이 엿보인다.

그러나 유가철학 원전번역에서 이같이 탁월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친일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근대사가 지닌 비극의 일단일 뿐만 아니라 식민성과 이어져 있는 우리의 근대가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소년논어에 대한 평가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소년 시대의 최남선은 분명 우리의 근대를 열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4. 광복 직후의 『논어』 번역—광복 이후에서 1970년까지

- 『(國文版)논어』, 慎弦重 譯, 靑羽出版社, 단가4288[1955]
- 『論語新譯』, 李家源 著, 通文館, 1956
- 『論語』, 李乙浩 譯, 新楊社, 단가4291[1958]
- 『論語全解』, 論語研究會 編, 昌新文化社, 1959
- 『(국역)논어』, 金鍾國 옮김,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9
- 『論語』, 金凡夫 校閱, 表文台 譯解, 玄岩社, 1965
- 『世界古典全集』 1-6,8, 韓國古典研究會 編, 光文出版社, 1965

- 『論語·大學』, 金敬琢 譯, 光文出版社, 1965
- 『世界古典全集』 5-8, 光文出版社, 1967
- 『論語』, 車柱環 譯, 乙酉文化社, 1969

50년대부터 1970년까지의 논어 번역서 중 필자가 입수한 번역서는 이상의 열 종류이다. 이상의 자료에 따르면 광복이후 최초의 논어번역서는 1955년에 간행된 신현중의 『논어』이며³⁾ 이듬해에 이가원의 『논어신역』이 간행되고, 또 1958년에 이을호의 『논어』, 1959년에 논어연구회편의 『논어전해』와 김종국의 『국역 논어』가 간행되었다. 이들 번역서가 일제강점기의 논어 번역서인 『언역논어』나 『언해논어』(이상 ‘언해논어류’로 약칭)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 번역서는 일제강점기의 『언역논어』나 『언해논어』가 한문용어를 중심으로 우리 말토를 붙이거나, 한문을 단순히 한글로 바꾸어 놓았을 뿐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에 비해, 전면적으로 우리말을 중심으로 번역문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다르다. 따라서 이들 번역서는 논어의 내용을 당시의 언어생활의 변화추세에 맞추어서 새롭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 곧 유가철학원전의 대표격인 논어를 번역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내용상으로는 전통적인 것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 표현방식과의 결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논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번역서들은 ‘언해논어류’가 사기의 〈공자세가열전〉이나 〈선성세가약력〉 따위의 공자전기를 싣고 있었던데 비해 번역자나 간행자의 서문 이외에 일체의 부속물 없이 바로 논어본문의 번역문을 맨앞에 두고 있다. 이런 점은 더 이상 전통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논어를 번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70년대의 논어 번역—1971년에서 1980년까지

- 『世界思想大全集』 1-7, Platon 外著, 大洋書籍, 1978
- 『論語 ; 中庸, 四書集註(I)』, 朱熹[著], 한상갑譯, 三省出版社, 1977
- 『(合本)四書三經』, 柳正基 監修, 正韓出版社, 1977

3) 이 사실은 김갑수의 논문 「개화기부터 1953년 이전까지 ; 한국 근대에서의 도가 및 제자철학의 이해와 번역(시대와철학14권)」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다.

- 『(新譯)論語』, 都瑠淳 譯註, 文藝出版社, 1977
- 『論語, 孟子』, 孔丘[지], 孟軻[지], 李家源 譯解, 東西文化社, 1976
- 『新譯四書三經』 1-6, 成均書館, 1976
- 『世界思想全集』 1-5, 三省出版社, 1976
- 『教育世代를 위한 論語選』, 李基奭 編譯, 丁淳睦 評說, 培英社, 1976
- 『世界教養全集』 6-10, 三珍社 編, 三珍社, 1975
- 『論語』, 孔丘 著; 桂明源 譯註, 三中堂, 1975
- 『論語』, 송준호 譯 世宗出版公社, 1975
- 『(現代譯)論語』, 백연옥 外 譯解, 弘新文化社, 1974
- 『한글論語』, 李乙浩 譯註, 博英社, 1974
- 『論語』, 朴一峰 譯, 集文堂, 1973
- 『(컬러版)世界の 文學大全集』 11-19, 同和出版公社, 1970

70년대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양의 논어 번역서가 간행되었다. 전집류 따위의 장식용 서적을 제외하더라도 풍성한 결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70년대의 논어 번역서 중 주목할 만한 책은 단연 이을호역 『한글논어』를 들 수 있다. 1974년 박영사에서 문고판으로 간행된 이 책은 기존의 번역서는 물론이고 당시의 일반적인 번역의 수준을 단번에 뛰어넘는 뛰어난 성과물이다.

5-1. 이을호 역 『한글논어』

이을호 역 『한글논어』는 우선 번역체제면에서 기존의 논어와는 크게 다르다. 먼저 책의 제목도 『한글논어』이다. 한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다. 물론 기존에 『(國文版)논어』(愼弦重 譯, 1955), 『(국역)논어』(김종국 옮김, 1959) 등이 있긴 하였지만, 모두 괄호 속에 넣어서 표시하였을 뿐이고, 한글과 논어를 병립시켜 논어와 대등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을호 역 『한글논어』가 처음이다.

이을호 역 『한글논어』는 기존의 번역서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모호하거나 난해한 부분의 번역에서 탁월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학이편〉의 ‘曾是以爲孝乎’를 “글쎄 그걸 효도라 할 수 있는가?”로 번역하고 있는데 통상 ‘일찍이’ 또는 ‘어찌’로 번역되는 ‘曾’을 ‘글쎄’로 번역하여

가벼운 의문을 표시하는 원문의 맥락을 정확하게 살려내고 있다. 기존의 번역에서 ‘曾’을 ‘일찍이’로 번역하고 적당히 넘어간 것과 비교할 때 정말 비교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 〈위정편〉의 ‘君子不器’를 “쓸모 있는 인간은 외통수는 아니다.”라고 번역했는데 수많은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다른 번역과 견줄 때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역시 〈위정편〉의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를 “참된 인간은 서로 친밀하되 패를 들지 않고, 하찮은 인간은 패를 짓되 정이 통하지 않는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周’자에 대한 정약용의 주석을 참고한 것으로 ‘周’와 ‘比’의 뜻을 친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 주희의 주석을 참고하면서도 얽매이지 않았으며, 정약용의 주석을 고집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학이편〉에서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를 “유선생 남과의 약속도 의리엔 맞을 때는 뒤집을 수도 있지.”라고 번역했는데 이를 주석에서 “종래 이행·실행의 뜻으로 옮겼으나 何晏의 고주에 의하여 ‘뒤집는다(覆)’ 뜻을 취한다. …… 이는 의가 신에 우선함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역자가 최소한 한당의 고주와 송대의 신주, 그리고 우리 주석을 망라하여 참고한 뒤에 우리말 번역을 시도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원문에 대해서는 따로 주석을 붙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석이나 해설을 과도하게 붙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적시함으로써 원문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으로 파격적 대화체의 채용을 들 수 있다. 도처에 ‘않을까!’, ‘아닐까!’, ‘근본일거야!’, ‘하지 않을까!’, ‘배워야지.’, ‘아주 다르단 말이야!’, ‘효자라 해도 좋을거야.’, ‘할테야!’, ‘하지 않았거든.’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거침없는 형식파괴와 일상 언어의 과감한 채택이야말로 논어가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록이란 점을 적실하게 드러내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원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도 이을호 역 『한글논어』는 완전한 우리말 번역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문이 원문과의 대칭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뛰어나다. 흔히 우리말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번역에서는 원문에 없는 군더더기가 많이 삽입되기 마련이어서 번역문만으로는 도저히 원문을 짐작할 수 없는 취약점이 나타나기 일쑤이고, 그런 난점을 피하기 위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원문의 충실한 전달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기형적인 번역문이 되거나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난해한 번역문이 되기 십상이다. 이을호 역 『한글논어』는 원문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절묘하게 선택함으로써 그런 난점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있다. 이 같은 번역은 오랜 기간의 심사숙고가 따르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원문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외에도 이을호 역 『한글논어』는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정성어린 번역으로 읽는 사람을 끊임없이 감탄하게 한다. 〈위정편〉의 ‘先行其言 而後從之’를 “행동이 앞서야 하며 말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고 번역한 것이라든지, ‘攻乎異端 斯害也已’를 “부질없는 공부에 골몰하면 손해만 볼밖에…”라고 번역한 것, ‘祿在其中矣’를 “벼슬이란 저절로 굴러들게 마련이다”고 번역한 것, ‘人而無信 不知其可也’를 “사람이 실없으면 그래도 좋을까 몰라!”로 번역한 것, ‘非其鬼而祭之 諂也 見義不爲 無勇也’를 “제 조상도 아닌데 제사를 모신다면 아첨하는 거다. 정의를 보고도 주춤거리는 것은 용기가 없는 탓이야.”로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이을호 역 『한글논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원문의 함의를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의 일상 언어로 바꾸어 번역했다.

둘째, 자연스러운 대화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공자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번역했다.

셋째, 원문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번역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는 번역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원문과의 대칭적 구조까지 살리는 절묘한 번역이 가능했다.

넷째, 한당의 고주와 송대의 신주, 그리고 우리 주석을 망라하여 참고한 뒤에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주석〉과 〈평설〉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번역을 추구했다.

다섯째, 난해하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 탁월한 감각으로 명쾌하게 번역하였다.

6. 80년대의 논어 번역—1981년에서 1990년까지

『論語·中庸·大學』, 金敬琢 譯, 明知大學校出版部, 1989

『論語』, 金學主編,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釋紛訂誤)論語新解』, 金鍾武 著, 民音社, 1989

『(新譯)論語』, 이기석, 한백우 譯解, 弘新文化社, 1987

『論語新譯』, 張基槿 譯, 汎潮社, 1985

『論語解說』, 李民樹, 一潮閣, 1985

『論語』, 安炳周 外譯,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4

『(完譯新版)四書五經』, 1-3, 修文書館, 1983

『論語를 재미있게 읽는 법』, 李明奎 編譯, 宇石, 1983

『(完譯版)四書五經』, 1-5, 翰林出版社, 1982

『論語·孟子講讀』, 劉明鍾 編, 螢雪出版社, 1981

『論語集註』, 성백효 역, 전통문화연구회, 1990

80년대에는 모두 11종의 논어가 간행되었다. 이는 70년대보다 오히려 적은 양의 출판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전집류 따위의 장식용 도서가 줄어들고 전공자가 참여하는 전문적 번역이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적으로는 어느 시기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거론할 만한 번역으로는 1984년에 간행된 안병주의 역 『논어』, 1989년에 간행된 김학주 역 『논어』와 김종무 저 『논어신해』, 1990년에 간행된 성백효 역 『논어집주』를 들 수 있다. 이 중 안병주의 역 『논어』는 유학, 한국철학, 동양철학 전공자 8명이 참여하여 번역한 공역으로 번역의 정밀도 부분에서 기존 논어의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한 역작이라 할 만하다. 또 중국문학전공자의 번역인 김학주 역 『논어』도 전공자의 장점이 돋보이는 정밀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겸비한 책이다. 아울러 1989년에 간행된 김종무 역 『논어신해』 또한 거론할 만한 논어번역서이다. 이 책은 실질적인 역자인 김종무를 저자로 표기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해석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번역이 대체로 주희의 주석이나 정현의 주석 등을 취사선택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비해 이 책은 고금의 각종 주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자 자신의 새로운 견해 또한 곳곳에 병기하여 전혀 새로운 내용의 논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번역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6-1. 성백효 역 『논어집주』

80년대에는 새롭고 참신한 번역서가 많이 간행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번역을 들자면 1990년에 간행된 성백효 역 『논어집주』를 들 수 있다. 성백효 역 『논어집주』는 지금까지 전공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문을 학습하는 교재로 꾸준히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토완역 논어집주』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당시까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주희의 『논어집주』를 완역한 번역서이다. 책의 체제 또한 전통적 방식을 따라 우리말 토를 붙이고 ⁴⁾

4) <범례>에서는 전통시기에 간행된 『관본언해(사서언해)』의 토를 중심으로 하고 『사서올곡언해』의 토를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서대전』본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말 번역을 아래에 싣고 있다. 전통적 방식의 체제를 따르면서 현토를 하고 완역한 『논어집주』는 이것이 처음이며 이후 유사한 아류번역서들이 나올 정도로 학습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고 번역하는 철저한 축자역을 통해 논어의 내용을 읽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은 물론이고 한문을 학습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문장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동지가 먼 지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얼핏 보면 기존의 번역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첫구절 ‘學而時習之’의 번역에서 ‘之’자를 대명사로 분명하게 번역하면서 다른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있다. 또 ‘朋’을 ‘동지’로 번역한 것도 주희의 『논어집주』에서 ‘朋’을 ‘同類’로 풀이한 것을 따른 것이다. ‘慍’을 ‘서운하다’고 번역한 것도 역시 주희가 慍을 愾怒意(노기를 품음)라고 풀이한 것을 정확하게 옮긴 것이다.

이처럼 성백효 역 『논어집주』는 주희의 『논어집주』를 완역한 만큼 본문의 번역과 주석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번역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더러 철저한 축자역을 통해 한문학습자들에게 유용한 번역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24종의 논어 번역을 비평한 성태용의 논문에서도 오역이 가장 적은 번역으로 선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원문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정통적인 번역의 전형으로 꼽을 만하다.⁵⁾

또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주석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조선조의 독서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주자집주』를 처음으로 완역함으로써 학술적 균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번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논어 번역

80년대에 잠깐 주춤했던 논어번역은 90년대에 들어 지금까지 무려 100여종에 가까운 번역서가 간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번역서로는 아래의 8종을 들 수 있다.

5) 성태용, 〈기획번역 서평 : 논어 (論語)〉, 철학연구 37권

『한글로 읽는 논어-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필훈 역, 동녘, 1998년

『논어이야기』 김형찬 역, 홍익출판사, 1999년

『논어 - 삶에 집착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황희경 역, 시공사, 2000년

『논어의 문법적 이해』, 류종목 역, 문학과지성사, 2000년

『이우재의 논어 읽기』, 이우재 역, 세계인, 2000년

『새번역 논어』, 이수태 역, 생각의나무, 1999년

『논어』, 박일봉 역, 육문사, 2000년

『알기 쉽게 풀이한 논어집주』, 정후수 역, 이화문화출판사, 2000년

이상의 논어 번역서에 대해서는 이미 조남호의 「요즈음 논어 해석의 문제점」(시대와철학 12권)과 줄고 「溫故知新과 述而不作的 사이에서 - 논어번역본검토(오늘의 동양사상5호)」 등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논자 또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 들 논어 번역서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은 생략하고 이 시기 논어 번역에서 드러나는 개괄적인 특징만 정리한다.

우선 90년대의 논어 번역서는 완전 한글 번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어 번역과 구분된다. 물론 이전에도 완전 한글 번역 논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논어가 완전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에 이르러 나타난 현상이다.

또 이전 시기의 논어 번역이 관련 분야 전공자나 전통 한학을 연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어 연구자와 독자의 다양화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90년대의 논어 번역서는 주희나 정약용 등의 전통적인 주석을 활용하여 번역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현대 학자들의 견해까지 반영하여 번역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논어 원문에 없는 부분까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부기하고 있는 점, 기존의 번역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해처를 많은 부분 해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논어 번역보다 한결 심층적인 번역물이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의 논어 번역은 완전 한글번역, 다양한 주석의 활용, 새롭고 참신한 해석 등에서 이전 시기의 논어 번역보다 한결을 더 나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100여종에 달하는 번역서가 간행됨으로써 양과 질에서 다른 시기를 압도했다고 할 만하다.

8.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논어 번역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논어 번역에서 필자가 검토한 책은 다음과 같다.

『한글 세대가 본 논어』, 배병삼역, 문학동네, 2002년

『논어고금주』, 이지형역, 사암, 2010년

『대역 논어집주-주자와 제자들의 토론』, 박성규역, 소나무, 2011년

『논어주소1』, 정태현역, 전통문화연구회, 2013년

2002년에 나온 배병삼 역 『논어』는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전하는데 각별히 공을 기울인 참신한 번역이다. 예를 들어, 덕치나 효에 대한 공자의 말이나, 계강자와의 대화에서 보여준 공자의 말을 정치적 맥락으로 풀이한 내용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서 논어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읽고자 하는 이에게 추천할 만하다.

최근에 나온 논어 중 주목할 만한 번역서로 2010년에 이지형이 완역한 정약용의 『논어고금주』와 올해 나온 박성규 역 『논어집주』를 빼놓을 수 없다. 『논어고금주』 완역은 한대와 송대의 경학 전통을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제의식으로 가로지른 우리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논어주석서의 완역이라는 점에서 뜻 깊은 번역이다.

또 박성규 역 『논어집주』는 ‘주자와 제자들의 토론’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주희의 집주를 단순히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주석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사서호문』, 『주자어류』, 『주자문집』 등을 추적하여 주희의 견해가 성립된 근원을 탐색하고 있다. 논어를 읽으면서 주자학의 장대한 세계관을 음미할 수 있게 해주는 깊이 있는 번역서라 하겠다.

8-1. 정태현역 『논어주소』

최근의 논어 번역서 중 단연 주목할 만한 책은 정태현 역 『논어주소1』이다. 이 책은 십삼경주소의 『논어주소』를 번역한 책으로 한대에 시작하여 송대에 완성된 경학 전통을 고스란히 복원했다고 할 만큼 전통 주석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책은 지금까지 번역된 적이 없는 십삼경주소 중 『논어주소』를 번역함으로써 학문적 저변을 다양화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기존의 번역 중 주희의 주를 엄밀하게 번역한 책은 있었지만 그와 맞먹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논어주소』를 번역한 책은 없었다. 그 때문에 주희집주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도 학문적 근거가 빈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 책으로 인해 문헌적 근거를 확인하면서 주희집주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책을 펼치면 기존의 논어 번역과는 사뭇 다른 표현과 마주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이편 제1장의 첫 부분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서 때에 따라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으랴?

‘子’라는 호칭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데 마치 언해본을 접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성급한 독자는 우리말을 홀대한 번역이라고 지레 짐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후의 주석을 잘 읽어보면 전통적 함의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子’라는 호칭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맥락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子’는 공자를 지칭한 호칭이지만 이를 ‘공자’라고 번역하든가, ‘선생’, 또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게 되면 마음이 ‘男子之通稱’이라고 풀이하고 공영달이 ‘男子有德之通稱也’라고 풀이한 맥락이 보존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후세 사람들이 다른 선생을 호칭할 때 ‘子曰’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가 공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석이 모조리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마치 금성, 태백성, 계명성, 개갑바라기와 셋별이 모두 하나의 별을 가리키는 지시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의 記意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 책의 번역은 원문이나 주석 모두 대충 넘어가는 구석을 찾기 어려울 만큼 한 자 한 자 정확한 축자역으로 원전을 충실하게 독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학문적 엄밀성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疏에서 子曰의 日을 從口乙聲으로 풀이한 것에 대해 “形部에서 口를 취하고 聲部에서 乙을 취해 字意와 字音を 나타낸 形聲文字라는 말이다.”로 역주하고 있는데 기존의 번역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엄밀한 주석으로 텍스트를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완전하게 번역하겠다는 역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학문적 엄밀성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태도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때도 지켜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본에 有朋自遠方來로 되어 있는 부분을 朋友自遠方來로 고치면서 《白虎通義》〈辟雍篇〉과 鄭玄의 주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바로잡고 있다. 다른 곳에서도 저본의 글자를 고치거나 보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학문적 연원을 중시하는 전통 경학의 충실한 복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전 번역과 연구의 전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결론: 앞으로의 과제

공자는 <논어>를 읽어본 적이 없다. 똥단지같은 이야기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공자는 그저 말을 했을 뿐이고 한번 내뱉은 그 말은 여느 말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공자는 자신의 말이 후세에 전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말을 기록한 <논어>는 당대에 엮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두 세대 동안을 전디다가 제자의 제자 대에 이르러 비로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난생 처음 듣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칠 만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슴 불타는 정의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없기 때문이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를 테면 이런 내용이다.

마구간에 불이 났다. 공자가 퇴근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다쳤느냐?” 그리곤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이게 끝이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말과 사람이 어떤 값으로 거래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값보다 말값이 더 비쌌다는 이야기다. 사람보다 말의 값어치에 더 관심을 두었던 세상에서, 그 반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의미는 자못 크리라. 제나라의 재상 안영이 현인 월석보를 말한 필과 바꿔 온 이야기라든가, 진나라 목공이 양을 대가로 주고 노예로 끌려가던 백리해를 데리고 온 일이 이야깃거리가 되는 까닭도 모두 같은 이유에서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값어치가 있다고 여긴 것보다 사람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가 말에 대해 묻지 않은 것은 평범하지만 사실 세상의 가치 서열을 송두리째 뒤엎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다.

<논어>는 새 책이 아니다. 2,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견뎌 온 헌책 중의 헌책이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지속되는 것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다. 책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어떤 책의 존속여부를 가늠하는 데 시간의 흐름보다 더 공정한 심판관이 있을까. <논어>는 그 긴 세월 동안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읽혀왔다. 순자는 <논어>의 편제를 따라 자신의 저술을 남겼고 사마천은 <논어>의 구절로 열전을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며, 책 살 돈이 없어 서점에서 책을 통째로 외웠다는 한나라의 왕충은 <논어>를 읽은 뒤 공자에게 따져 묻는 <문공편>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송나라의 재상 조보는 반부의 <논어>로 천하를 다스렸다는 ‘반부논어치천하(半部論語治天下)’라는 말을 남겼다. 전통 시기 <논어>는 고전이 아닌 ‘경(經)’으로 절대시되었다.

그러나 근대의 길목에서 <논어>는 봉건윤리의 대명사로 지목되더니, 급기야 지주계급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비판받았다. 또 문화혁명 때는 공자를 반혁명분자라 비난하는가 하면 오곡을 분간치 못하고 사지를 놀리지 않는 기생충이라 했다. 다 맞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현의 말씀을 팔면서 손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남의 땀으로 빚은 음식에 빌붙는 자가 많으니 말이다. 얼마 전 이 나라에 왔다 간 인기 지식인 슬라보예 지젝은 〈논어〉를 읽고 공자를 멍청이의 원조라 했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어떤 책도 멍청하게 읽으면 멍청한 책이 되기 마련이니.

〈논어〉를 읽고 나서 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는 다 일리가 있는 말이며 심지어 그 반대로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읽지 않고서는 이들 커뮤니티에 낄 수가 없다. 이 시대에 〈논어〉가 멍청이의 헛소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삶의 양식이 될 것이냐는 모름지기 우리가 〈논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다.

키엘케고르는 “철학은 날마다 허물을 벗는 뱀이다. 우둔한 자들만이 그 껍질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했다. 논어가 경전의 단단한 껍질을 벗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자면 논어의 텍스트를 삶의 문법으로 재해석해낼 때 가능할 것이다.

논어의 텍스트를 삶의 문법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새는 하늘을 나는 것도 있고 땅을 걸어 다니는 것도 있다. 새만 그리고 배경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독수리인지 닭인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논어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발설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이 참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東洋古典 教育의 現況과 展望

鄭載喆(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 한국한문교육학회장)

1. 머리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한문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문자정책 관련 법률을 옮겨놓은 것이다.

자료① : 법률 제6호: 大韓民國의 公用文書는 한글로 쓰되, 一定期間 漢字를 併用할 수 있다.

자료② : 법률 제7368호 제1항 총칙 제14조: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직후부터 文字政策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선어학회는 같은 해 10월 16일 ‘한자폐지 발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초등 교육에서 한자를 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조건을 정하였다. 이어 美軍政廳 學務局은 같은 해 11월 ‘조선 교육 심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과서에서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등·중등 교과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한자를 도림(괄호) 안에 적어 넣게 하였다.⁶⁾ 이와 같은 일련의 문자정책의 최종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1948년 10월 9일 공포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다. 자료①에서 보듯이 이 법률에서는 국가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併用하도록 하였다. 이는 大韓帝國期인 1908년 2월 6일 공포된 國漢併用の 문자정책이 40년 만에 한글전용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 2005년 1월 27일 자료②의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國語基本法》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公共機關의 공문서는 반드시 語文規程에 맞아야만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한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 전용의 문자정책이 1948년에 공포된 법률보다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문교육은 위와 같이 해방 이후 지속된 한글 중심의 문자정책에 따라 심하게 왜곡된 형태로 수차례 변화하였다. 먼저 1949년 9월 국회는 제5회 제33차 회의에서 ‘초등학

6) 임용기(2002), 66~67면

교 교육에 간단한 한자를 敎授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방법은 문교사회위원회에 맡겨서 실행' 하라는 내용의 '한자 사용에 관한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곧이어 정부는 1951년 9월 '교육한자 1000자'를 제정하고, 1965년 3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국어교과서에서 한자를 露出시키도록 하였으나, 1968년 10월 대통령에 의해 '한글 전용 촉진 5개항'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1975년 3월 중·고등학교 교과서(국어, 국사 등)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조치하였고, 1981년 10월 대통령은 한글날 담화 발표 내용을 통해 '앞으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국·한 혼용의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1994년 교육부 장관에 의해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1999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자 병용 확대 방침을 천명하기도 하였다.⁷⁾ 본 발표에서는 위와 같이 한글 중심의 문자정책 아래 현재 학교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東洋古典 敎育의 現況과 展望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한문교육과 專門機關의 동양고전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동양고전 교육의 현황

1) 중·고등학교의 한문 교육

광복 이후 진행된 중·고등학교에서의 한문 교육은 각 시기별 교육과정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모두 10여차에 걸쳐 진행된 국가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한문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문과 교육과정의 차수별 주요 내용

구분	교과 형태	편 제		내용체계
		중학교	고등학교	
교수요목기	국어과 보충	-	-	-
1차 교육과정	국어과에포함	-	-	-
2차 교육과정	국어과에포함	-	-	-
3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필수	필수	-
4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필수	필수	-
5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필수	필수	-
6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선택	과정별 필수과목	한자, 한자어, 한문
7차 교육과정	독립교과	선택(재량활동)	선택(교양과목군)	한자, 한자어, 한문
2007개정 교육과정	독립교과	선택(재량활동)	선택(교양과목군)	한문, 한문지식
2009개정 교육과정	독립교과	선택	선택(생활·교양)	독해, 문화, 한문지식

표에서 보듯이 漢文科가 國語科에서 독립교과로 분리되어 필수교과가 신설된 것은 제3차

7) 정준섭(2002), 68면

교육과정 때이다. 1969년 정부는 한글 전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학교 국어과에서 한자, 한문의 지도 내용을 삭제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II의 한문 이수 단위를 6단위에서 8단위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글전용 정책의 강행은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에 의해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다. 그에 따라 1972년 2월 28일 중·고등학교의 한문을 독립교과로 신설하는 문교부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8월 16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가 확정, 공포되었다. 곧이어 1973년에 개정된 3차 교육과정에서 한문과가 국어과에서 분리되었고, 이때부터 한문과는 5차 교육과정까지 필수교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문과가 필수교과에서 선택교과로 바뀌게 된 것은 1992년에 개정된 6차 교육과정 때이다. 6차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 재량권 확대라는 명목 아래 중학교 교과를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나누고, 고등학교 보통교과를 공통 필수과목, 과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나누었다. 이 때 한문과는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사회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어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도 한문과는 중학교에서 재량활동의 선택과목의 하나가 되고, 고등학교에서 교양과목군의 선택과목의 하나가 되었다. 그 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한문과는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선택과목이 되었다. 특히 7차 교육과정부터 중·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생활외국어가 추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한문과목을 선택하는 학교 수가 급감하였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6차 한문과 교육과정부터 ‘내용체계’가 새로 제시된 것이다. 6차 교육과정은 4~5차 교육과정에는 없던 ‘漢字, 漢字語’ 교육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5차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제시된 ‘漢字, 漢字語, 漢文’이 6~7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대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한자→한자어→한문’으로 이루어진 ‘내용체계’는 한문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한자어’ 영역이 포함됨으로써, 한문 문장으로 이루어진 古典語로서의 한문교육의 位階性과 系列性의 특징을 제대로 具現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⁸⁾ 이에 따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 한문지식’이라는 새로운 ‘내용체계’를 제시하여, ‘한자어’ 교육을 ‘한문지식’의 ‘어휘’ 영역 안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한문과의 독립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체계’는 ‘한자어’ 교육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내용체계’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8) 송병렬(2003), 285~286면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영역	내 용			
	중영역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독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좌동	소리 내어 읽기
		뚫어 읽기	좌동	
	이해	풀이하기	좌동	좌동
		이해하기	"	"
		감상하기	"	"
문화	한자문화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	"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	"
	언어생활과 한자문화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	"	"
	한문학의 이해	-	-	한문학 고전 작품 이해하기, 감상하기
한문 지식	한자	한자의 특징	좌동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	"	
	어휘	단어의 짜임	"	단어의 갈래
		단어의 갈래	"	
		성어의 의미	"	
	문장	문장의 구조	"	좌동
		문장의 유형	-	-
		-	문장의 수사	좌동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역'을 '독해', '문화', '한문지식'의 셋으로 나누었다. 중영역으로는 '독해' 영역에 '읽기'와 '이해'가 있고, '문화' 영역에 '한자 문화'와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가 있으며, '한문 지식' 영역에 '한자', '어휘', '문장'이 있다. '독해' 영역의 내용 요소로는 '읽기'에 '소리 내어 읽기', '뚫어 읽기'가 있고, '이해'에 '풀이하기', '이해하기', '감상하기'가 있다. 또한 '문화' 영역의 내용 요소로는 '한자 문화'에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한자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가 있고, '언어생활과 문화'에 '언어생활 속의 한자 어휘 알고 활용하기'가 있다. 그리고 '한문 지식' 영역의 내용 요소로는 '한자'에 '한자의 특징', '한자의 짜임'이 있고, '어휘'에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가 있으며, '문장'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내용의 학년별 수준에 따라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 한문 II의 중영역의 내용을 달리 설정하였다. 중학교 한문과 고등학교 한문 I은 '한문 지식'의 '문장' 영역에서의 '문장의 유형'은 중학교 한문에서 학습하고, '문장의 수사'는 고등학교 한문 I에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한문 II'에서는 '독해'의 '읽기' 영역에 설정된 '뚫어 읽기'가 제외되어 있다. 또한 '문화'에서는 중영역에 '한문학의 이해' 영역을 추가하고, '한

문학 고전작품 이해하기와 ‘한문학 고전 작품 감상하기’를 내용 요소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문 지식’의 ‘어휘’ 영역에 설정된 ‘단어의 짜임’, ‘단어의 갈래’, ‘성어의 의미’를 ‘단어의 갈래’로 설정하고, ‘문장’ 영역에 설정된 ‘문장의 유형’을 학습 요소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고등학교 공히 주당 1 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업 시수에서 ‘독해’, ‘문화’, ‘한문지식’의 세 영역에 제시된 학습 요소를 모두 학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표 3]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과 목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한문/정보/환경/생활외국어(8)/보건/진로와 직업)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표 4]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유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과(군)	기초	국어	15(10)	45(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영어	15(10)		
		수학	15(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10)	30(20)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20(10)	
		예술(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8)/한문/교양	16(12)	16(12)	
	소 계		111(72)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199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지고, 교과(군)에는 국어 교과에서 선택 교과까지 8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교과에는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13개 교과가 있다. 고등학교의 교과(군)에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등 4개의 교과가 있고, 생활·교양 교과에는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이 있다. 그중 제2외국어 과목에는 독일어 I·II, 프랑스어 I·II, 스페인어 I·II, 중국어 I·II, 일본어 I·II, 러시아어 I·II, 아랍어 I·II, 베트남어 I·II가 있고, 한문과목에는 한문 I·II가 있으며, 교양 과목에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 경제가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생활·교양 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총 28개에 달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한문과목이 속해 있는 교과재량 과목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7) 등 10과목에 총 이수시간은 중1~3학년에 306시간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한문 과목이 속해 있는 선택교과(군)는 한문,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8), 보건, 진로와 직업 등 13과목에 기준 이수시간은 199시간이 배정되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과목은 3개가 늘어난 것에 반하여, 시간은 1/3에 해당하는 10시간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문교과가 속해 있는 교양과목군은 한문, 교양 중에서 최소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교과가 속해있는 생활·교양 영역의 총 이수단위는 16(12)단위로, 이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기술·가정 6단위와 제2외국어 6단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2007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한문과의 수업 시수로 인하여, 다음 표에서 보듯이 중·고등학교에서 한문과목을 개설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표 5] 최근 4년간 중학교 한문 과목 개설 학교 및 학생 수⁹⁾

구분	개설 학교 수				이수 학생 수			
	학교수	총학교수	이수비율	증감(%)	학생수	총학생수	이수비율	증감(%)
2009	2,907	3,106	94%	0	1,381,987	2,006,972	69%	0
2010	2,991	3,130	96%	+2%	1,265,503	1,974,798	64%	-9%
2011	2,840	3,153	90%	-4%	918,065	1,910,572	48%	-34%
2012	2,329	3,162	74%	-20%	527,553	1,849,094	29%	-62%

[표 6]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한문1 과목 개설 학교 및 학생 수¹⁰⁾

구분	개설 학교 수				이수 학생 수			
	학교수	총학교수	이수비율	증감(%)	학생수	총학생수	이수비율	증감(%)
2009	1,239	1,534	81%	0	422,406	507,349	83%	0
2010	1,144	1,561	73%	-8%	376,905	506,315	74%	-9%
2011	-	-	-	-	-	-	-	-
2012	567	1,529	37%	-44%	131,383	463,722	28%	-55%

9)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2009~2012년10)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2009~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된 2009~2012년 중학교 한문 과목의 개설 학교와 학생 수에 따르면, 2009년 한문과목이 개설된 중학교는 2,907교로 총 학교 수(3,106)의 94%에 이른다. 2010년에는 2,991교가 개설하여 2009년에 비해 2%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840교로 2009년에 비해 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개설 학교가 급격히 줄어든 2,329교로 2009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중학교 한문과목의 이수 학생 수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2009년에는 1,381,987명이 한문과목을 이수하여 총 학생 수(2,006,972)의 69%를 차지하였는데, 2010년에는 이수 학생 수가 1,265,503명으로 2009년에 비해 9%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918,065명이 이수하여 2009년에 비해 34%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527,553명이 이수하여 2009년에 비해 62%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중학교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2011년을 제외한 3개년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9년 고등학교에 한문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1,239교로 총 학교 수(1,534)의 81%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0년 한문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1,144교로 2009년에 비해 8%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567개로 개설 학교 수가 현격히 줄어 2009년에 비해 44%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한문과목의 이수 학생 수 또한 마찬가지이다. 2009년에는 고등학교에서 422,406명이 한문과목을 이수하여 총 학생 수(507,349)의 83%에 달하였는데, 2010년에는 한문과목 이수 학생 수가 376,905명으로 2009년에 비해 9%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131,383명으로 한문과목을 이수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2009년에 비해 55% 감소하였다.

위와 같이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에서 한문과목을 개설한 학교 수와 이수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원인은 앞서 살핀 수업 시수의 축소와 함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된 ‘집중 이수제’에서 찾을 수 있다. 집중이수제는 국가 교육과정에 교과(군)별·학교별로 제시된 총 시간수를 특정 학년 및 학기에 집중 배정하여 이수하게 하는 교육과정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통 12~13개씩 편성되는 교과목을 8개 이내로 편성하기 위해, 몇몇 교과목을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¹¹⁾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고입이나 대입에서 주요 교과로 인식되는 과목 중심으로 학년별 이수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문과목은 주요 교과목에서 배제되어 일절 개설하지 않거나 한 두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한문과목의 개설 학교 수와 이수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1) 류준경(2013), 233~234면

2) 전문기관의 동양고전 교육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된 동양고전을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으로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고전연수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고전번역교육원,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한문연수과정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동양고전 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전통문화연구회 고전연수원의 연혁 및 주요 특징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연혁	• 1988년 4월 30일 - 전통문화연구회 창립 • 1988년 7월 1일 - 고전연수원 개설 • 1992년~2009년 - 서울시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교육 목적	• 한국학 및 동양학도의 한문 독해력 증진 • 지식인과 일반인의 교양한문 교육과 한자한문교육의 저변 확대 • 한자·한문 교육 지도자 양성
연수 방침	• 전통적 방법과 현대적 방법을 조화시킨 講讀式 교육 • 동양고전연수과정, 전통문화교양과정, 한자한문지도사양성과정 운영 • 독해력 향상을 위한 50독 100독 성독표 제공, 심화과정 및 단기강좌 운영 • 사이버한문연수원, 성독테이프, 수진본, 고전요체 등을 이용한 입체적 학습효과 증대 • 대학(원)생에게 장학특전과 일반인에게 연수특전 부여
수강 인원	• 2013년 11월 현재 - 119기 강좌 개강(누적 교육인원 3만여 명)

전통문화연구회는 한국학 및 동양학도의 양성과 일반인의 교양한문 교육에 뜻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서울시 종로구에 자리한 낙원빌딩에서 1988년 4월 30일 창립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1일 고전연수원이 개설되어 지금까지 동양고전 교육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 교육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동양고전연수과정을 통하여 한국학 및 동양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문 독해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통문화교양과정을 통하여 지식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양한문 교육과 한자한문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는 한자한문지도사양성과정을 통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자·한문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고전연수원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강생의 독해력 향상을 위한 50독 100독 성독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화과정 및 단기강좌를 함께 운영하여 수강생이 학문 역량에 따라 이수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전연수원의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8] 전통문화연구회 고전연수원의 교과 과정

구 분		주요 강좌	주요 과목
필수 과목	기초한문	基礎漢文 1	四字小學, 推句, 啓蒙篇, 明心寶鑑
		基礎漢文 2	童蒙先習, 擊蒙要訣
	중급한문	小學	小學集註
		論語	論語集註
		孟子	孟子集註
		大學·中庸	大學中庸集註
선택 과목	기초한문	基礎漢文3	海東小學, 學語集, 童蒙須知 외
		孝經	孝經大義
		千字文	註解千字文
		敎養漢文	漢文文法, 漢詩理論, 漢文學概論 외
	중급한문	漢文講讀	古文眞寶後集, 唐宋八家文, 古文觀止 외
		漢詩講讀	古文眞寶前集, 唐詩三百首 외
		史籍講讀	史記, 通鑑節要, 三國史記, 三國遺事 외
	고급한문	諸子選獨	莊子, 道德經 외
		五經選獨	詩經, 書經, 周易, 春秋, 禮記
		韓中名문	文選, 東文選, 麗韓十家文抄 외

고전연수원의 교과 과정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는데, 필수 과목에는 기초한문과 중급한문 과정, 선택 과목에는 기초한문, 중급한문, 고급한문 과정이 있다. 필수 과목의 기초한문 과정에서는 《四字小學》, 《推句》, 《啓蒙篇》, 《明心寶鑑》, 《童蒙先習》, 《擊蒙要訣》 등 조선시대 몽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문의 기초를 학습한다. 또한 필수 과목의 중급한문 과정에서는 《小學》, 《論語》, 《孟子》, 《大學·中庸》 등 《小學》과 四書を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선택 과목의 기초한문 과정에서는 《海東小學》, 《學語集》, 《童蒙須知》, 《孝經》, 《千字文》, 《漢文文法》, 《漢詩理論》, 《漢文學概論》 등 다양한 내용의 몽학 교재들과 한문학의 기초를 익힌다. 또한 선택 과목의 중급한문 과정에서는 《古文眞寶後集》, 《唐宋八家文》, 《古文觀止》 등을 교재로 한문을 학습하고, 《古文眞寶前集》, 《唐詩三百首》 등을 교재로 한시를 학습하며, 《史記》, 《通鑑節要》,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史書を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의 고급한문 과정에서는 《莊子》, 《道德經》 등의 諸子書を 학습하고, 五經을 선독하며, 《文選》, 《東文選》, 《麗韓十家文抄》 등의 한국과 중국의 명문을 학습한다. 고전연수원은 2013년 11월 현재 119기에 달하는 강좌를 개강하였고, 이곳에서 수강한 누적 교육 인원이 3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동양고전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2000년부터 온라인상에 사이버書堂과 사이버書院을 개설하여 국내 최다 한자한문 동영상을 제공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사이버서당은 한자 및 기초한문(蒙學敎材), 교과서한자어 등 809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에 이르러 사이버書堂에서 사이버漢文研修院(사이버書院)을 분리시켜 四書五經 諸子百家 고문진보 등

총 2629시간으로 제공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들 사이버서당 및 한문연수원은 PC는 물론 Mobile 서비스를 통해 한자·한문교육을 선도하고,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다수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강생의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독테이프, 수진본, 고전요체 등을 개발하여 입체적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표 9]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연수원의 연혁 및 주요 특징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연혁		• 1965년 11월 - 학·예술계 원로 50명이 정부의 후원으로 창립 • 1966년 3월 - 고전번역사업 착수 • 1970년 3월 -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설립 • 1974년 5월 -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개원 • 1986년 - 민족문화추진회 구기동 청사 이전 • 2007년 11월 - 한국고전번역원 설립 • 2009년 7월 - 부설 고전번역원교육원 전주분원 청사 건립 • 2012년 2월 -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밀양분원 설립
교육 목적		• 한학에 기초한 전통적 한문고전 독해 교육 • 한문고전번역 이론·실무 교육 • 한문고전 전문번역자 양성
편제	수업 연한	• 고전번역연수과정 - 3년(주·야간) • 고전번역전문과정 I - 2년(주·야간) • 고전번역전문과정 II - 2년(주간)
	정원	• 고전번역연수과정 - 50명/학년 • 고전번역전문과정 I - 10명/학년 • 고전번역전문과정 II - 5명/학년
이수 학점		• 고전번역연수과정 - 90학점 • 고전번역전문과정 I - 36학점 • 고전번역전문과정 II - 36학점
졸업 인원		• 1,457명(2013년 3월 현재) : 고전번역연수과정 I 1,117명, 고전번역연수과정 II 225명, 고전번역전문과정 115명

한국고전번역원은 1965년 11월 학계와 예술계 원로 50명에 의해 정부의 후원으로 창립되었고, 1970년 3월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1974년 5월 전문적인 한문교육기관인 부설 국역연수원이 개원하여 국역자 양성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2007년 11월 한국고전번역원이 설립되어 번역 사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청사가 건립되었고, 2012년 2월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밀양분원이 설립되었다. 고전번역연수원의 교육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주·야간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고전번역연수과정을 통하여 한학에 기초한 전통적 한문고전을 독해하는 것이다. 다음 하나는 주·야간 2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고전번역전문과정 I을 통하여 한문고전번역의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주간 2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고전번역전문과정 II를 통하여 한문고전 전문번역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고전번역연수과정의

정원은 50명이고 총 이수 학점은 90학점이다. 또한 고전번역전문과정 I 은 10명 정원으로 36 학점을 이수하고, 고전번역전문과정 II는 5명 정원으로 36학점을 이수한다. 고전번역연수원의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0]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연수원의 교과 과정

구 분	학 년	과 목	학 점
고전번역 연수과정	1학년	논어·대학, 통감절요, 소학	24
	2학년	맹자·중용, 시경, 고문진보(선택), 제자선독(선택)	24
	3학년	서경, 주역, 춘추좌전, 성리서강독(선택), 사기(선택)	24
	계		72
고전번역 전문과정 I	1학년	경학연구A, 한국문집선독A, 중국사상	18
	2학년	번역실습, 당송고문강독, 고문헌정리실습, 표점교감실습	18
	계		36
고전번역 전문과정 II	1학년	경학연구B, 한국문집선독B, 한국사상	18
	2학년	번역실습, 명청고문선독, 당송시강독, 한국한시강독	18
	계		36

고전번역연수원의 고전번역연수과정에서는 조선시대 기본교재이었던 四書五經을 중심으로 역사서, 문학서, 사상서 등을 강의하여, 번역에 필요한 한문 해독 능력과 함께 동양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1학년에서 《論語》, 《大學》, 《通鑑節要》, 《小學》을 학습하고, 2학년에서 《孟子》, 《中庸》, 《詩經》, 《古文眞寶》, 諸子選讀을 학습하며, 3학년에서 《書經》, 《周易》, 《春秋左氏傳》, 性理書 講讀, 《史記》를 학습한다. 또한 고전번역전문과정 I · II에서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국역자 양성에 필요한 과목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고전번역전문과정 I · II의 1학년에서 경학연구A·B, 한국문집선독A·B, 중국사상·한국사상을 이수하고, 고전번역전문과정 I의 2학년에서는 번역실습, 고문헌정리실습, 표점교감실습 등 국역실습과정을 이수하며, 고전번역전문과정 II의 2학년에는 명청고문선독, 당송시강독, 한국한시강독 등 시문 강독 중심의 문학서를 학습한다. 고전번역연수원의 졸업생은 2013년 3월 현재 1,457명인데, 이를 과정별로 나누면 고전번역연수과정 I 이 1,117명, 고전번역연수과정 II가 225명, 고전번역전문과정이 115명이 된다. 위와 같이 고전번역연수원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역자 양성사업을 통해 민족문화를 계승한다는 고유의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표 11] 태동고전연구소 한문연수과정의 연혁 및 주요 특징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연혁	• 1963년 11월 - 서울 종로구 수표동에 연구소를 개설, 일반인 대상 한문강좌 • 1974년 10월 - 지곡정사 신축(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11-1)

	• 1976년 9월 -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으로 5년 과정 제1기 한문연수원 5명 모집 • 1981년 12월 - 임창순 소장 단독 운영, 연수연한을 3개년으로 축소하고 연수기간 지곡서당에 상주 • 1985년 8월 - 한림대학교부설 태동고전연구소로 발족 • 1988년 5월 - 현대식 기숙사 신축(1인 1연구실 제공)
교육 목적	• 교육 사업으로 한문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연구인력 양성 • 고전 문헌의 조사연구정리, 학술지간행, 고전번역출판 • 학술발표회 개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 추진
수업 방법	• 수업은 기숙사 건물 내에 있는 강의실에서 진행. • 수업은 필수과목(1학년-四書, 2학년-詩·書經, 3학년-周易)과 선택과목으로 구성 • 다른 학년의 수업과 달리, 1학년 필수 과목인 四書는 講을 위주로 수업 - ‘講’이란 배운 내용을 외워 암송하는 것 - 1학년은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전 시간에 학습한 부분을 외워 강해야 함 - 한 해 동안 네 차례의 암송 시험 실시(論語 중간강·총강, 孟子 중간강·총강) -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소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음 • 四書를 제외한 다른 수업은 필기시험만 실시
졸업 인원	• 2013년 2월 현재 - 211명(1~29기)

태동고전연구소는 1963년 11월 서울 종로구 수표동에서 개설되었다. 연구소에서는 이때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문강좌를 실시하였고, 1974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에 신축된 지곡정사로 장소를 이전하였다. 1976년 9월 한국고등교육재단 지원으로 5년 과정 제1기 한문연수과정 5명을 모집하였으나, 1981년 12월부터 임창순 소장이 한문연수과정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이때부터 연수연한을 3개년으로 축소하고 연수기간 동안 지곡서당에 상주하도록 하였다. 이어 1985년 8월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가 발족되었고, 1988년 5월 1인 1연구실이 제공되는 현대식 기숙사가 신축되었다. 태동고전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한문연구과정을 통해 한국학 및 동양고전학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한림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한문연수과정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3년의 연수 기간 동안 1인 1연구실의 제공과 함께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연구소에서는 고전 문헌의 조사 연구 정리와 더불어 학술지를 간행하거나 고전번역물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거나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문연수과정의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2] 태동고전연구소 한문연수과정의 교과 과정

구분	학수번호	학기	과목명	시 간	학 점
기본	101 - I	1	論語I	3	3
	101 - II	1	論語II	3	3
	101 - III	1	論語III	3	3
	102 - I	2	孟子I	3	3
	102 - II	2	孟子II	3	3
	103 - I	1	詩經I	3	3
	103 - II	2	詩經II	3	3

	104 - I	1	書經I	3	3
	104 - II	2	書經II	3	3
	105 - I	1	周易I	3	3
	105 - II	2	周易II	3	3
	106 - I	1	번역연습 I	3	3
	106 - II	2	번역연습 II	3	3
	계			39	39
선택	201 - I	1	草書I	3	3
	201 - II	2	草書II	3	3
	202 - I	1	春秋I	3	3
	202 - II	2	春秋II	3	3
	203 - I	1	禮記I	3	3
	203 - II	2	禮記II	3	3
	204 - I	1	史記I	3	3
	204 - II	2	史記II	3	3
	205	2	諸子選讀	3	3
	206	1	古文選讀	3	3
	207	2	韓國文集選讀	3	3
	208	2	漢詩特講	3	3
	계			36	36

태동고전연구소의 한문연수과정은 기본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진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과목은 四書, 三經, 번역실습 등 39시간 39학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과목은 草書, 《春秋》, 《禮記》, 《史記》, 諸子選讀, 古文選讀, 韓國文集選讀, 漢詩特講 등 36시간 36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3년간 진행되는 한문연수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구소에서 흔히 ‘講’이라고 일컬어지는, 유학의 기본 경전인 四書에 대한 암송이 연수생 모두에게 강도 높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연구소에서는 ‘講’의 의미를 ‘이미 배운 경서의 본문을 암송하여 선생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 시간에 배운 것을 수업 시작 전에 선생 앞에서 암송하는 것을 ‘單講’이라고 하고, 배우고 있는 경전의 중간과 끝에 가서 처음부터 중간과 끝까지 모두 암송하여 바치는 것을 ‘中間講’, ‘總講’이라고 한다. 《論語》의 경우라면, 〈學而〉편부터 〈鄉黨〉편까지가 중간강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學而〉편부터 〈堯曰〉편까지가 총강에 해당된다. 대개 중간강에 1주일, 총강에 2주일 정도 수업 없이 암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배정되고, 암송의 정도가 미흡한 자에게는 경계의 말과 함께 1~2주 정도 기간이 추가된다. 이렇게 세 단계의 암송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닭에 《論語》를 배우는데 10~12주 정도가 소요된다.¹²⁾ 태동고전연구소 한학연수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2013년 2월 현재 211명(1~29기)이 이르고 있고, 이곳을 졸업한 인원의 대다수가 한국학 및 동양고전학 분야의 연구자로 활약하고 있다.

12) 김인철(2005), 146면

3. 전망 및 제언

다음 자료는 2013년 6월 5일 국회에서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의 주최로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외국어/한문 교육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의 축사를 옮겨놓은 것이다.

자료③: 요즘 우리의 언어 교육 현실을 보면, 한자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우리말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동음이의어의 뜻 이해와 창의성의 밑바탕이 되는 조어능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¹³⁾

자료④: 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나아가 한국이 자신의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는 문화발신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한문 교육의 강화가 절실합니다.¹⁴⁾

자료⑤: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의 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대학입시에서도 이 과목들의 성적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제2외국어와 한문 성적을 신입생 선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와 지도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봅니다.¹⁵⁾

우리의 국어인 한국어는 약 30%의 고유어와 약 70%의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 사고의 가능성은 사고의 도구인 언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간이 사고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도구로써 언어가 필요하며, 도구의 다양성과 정교함에 의하여 사고의 정도와 깊이가 결정된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도구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사고할 수 없으며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한국어의 주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한자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한국어로 제대로 思考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자료③에서 보여주듯이 현재 학생들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개념적, 추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자어를 바르게 표현하거나,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의 70%를 점하고 있는 한자어를 학교에서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3) 김세연(2013), 9~10면

14) 유기홍(2013), 12면

15) 유기홍(2013), 12면

16) 한수웅(2013), 20~21면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문화는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는 “간단히 詩 하나를 이해하는 것에도 보통의 의미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단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나, 또는 그들 단어의 함축적 의미에 의하여 암시되어 있는 그 사회의 삶의 모습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까지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¹⁷⁾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한 나라 문화의 뿌리에 해당하는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그 나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안에 공통의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담고 있는 언어를 항상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의 모습과 지혜, 사상, 감정 및 가치관을 한문으로 기록하여 놓았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의 선인들이 이룩해 놓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자료④에서와 같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단절 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한문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료⑤는 현재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문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 하나는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문 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문 교과를 ‘생활교양’ 영역에서 ‘언어’ 영역에 포함시켜 ‘민족문화의 창달 능력 배양’이라는 한문 교과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하고, 영어 교과와 같이 한문 교과를 ‘집중이수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학기당 8과목 이내의 편성’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한문 교과를 필수교과로 환원시켜 일정 단위 이상 반드시 수업하는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한문 과목의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大學修學能力試驗’에서의 ‘한문’ 점수가 대입 전형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평가지표인 ‘학생부 성적 반영 과목’에 한문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학교에서의 한문 교육의 강화와 함께 동양고전 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 줌으로써, 동양고전 번역가와 동양고전학 연구자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1),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김세연(2013,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축사〉,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외국어/한문 교육 정상화 방안》,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17) Sapir(1949), 69면. 金鎮宇(1996), 185면 재인용

46 東洋古典 現代化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김인철(2005), 〈태동고전연구소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의 한문교육과 그 의의〉, 《대동한문학》 제22집, 대동한문학회.

류준경(2013), 〈한국한문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3년 한국한문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초중고 한문 학습 자전의 현황과 편찬 방안》, 한문교육학회.

송병렬(2003), 〈한국의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제와 해결의 방향〉, 《한문교육연구》 제21호, 한문교육학회.

유기홍(201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축사〉,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외국어/한문 교육 정상화 방안》,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임용기(2002), 〈21세기의 문자정책〉, 《21세기와 국어 정책》, 국립국어연구원.

정준섭(2002), 〈21세기 국어 교육 정책〉, 《교육한글》 제15권, 한글학회.

한수웅(2013), 〈單純文盲에서 實質文盲으로?〉, 《傳統文化》, 통권35호, 2013년 봄, (사)전통문화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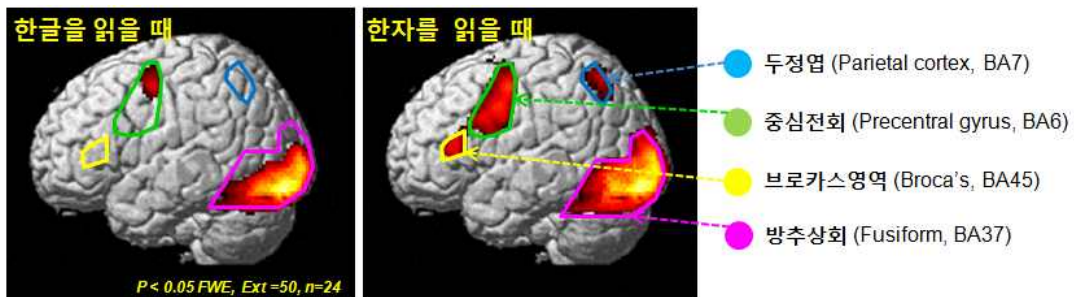
뇌과학으로 본 한자의 특성

趙長熙(가천대학교 석학교수)

한자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작금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UNESCO에서 전 세계 68개국 중에서 문맹율은 가장 낮은 나라였으나 문맹의 이해도에서는 68개국 중 67위로서 무언가 우리 국어교육에 잘못이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우리 뇌과학연구소에서는 우리국어(한글)이 전통적으로 쓰여 오던 우리나라의 한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뇌과학적인 면에서 연구하여 왔다. 특히 문장의 전체적인 이해도와 기억 등 기초적인 연구로서 한자의 우리국어에서의 필요성 등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최초의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자는 그 문자적 특성에 있어서 한글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기체계에 있어서는 표음문자며 철자적 규칙성이 매우 불규칙한 반면에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철자와 음운이 매우 잘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하여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읽고 의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뇌의 부분이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들이 있다. 2 한국의 연구결과를 비롯해 우리와 비슷한 문자체계를 가진 중국, 일본의 연구 결과들로 부터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뇌과학적 증거들을 얻을 수 있다. 1,2,3 평균나이 27세인 남녀 대학생 각 각 12명씩을 대상으로 2음절짜리 한자단어와 한글단어를 소리 내지 않고 읽는 연구에서 한자를 읽을 때는 한글을 읽을 때에 비해서 방추상회부분(fusiform gyrus)과 중심전회부분(precentral gyrus), 그리고 양측 두정엽(parietal cortex)과 브로카영역(Broca's area)에서 더 증가된 활성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자문자의 형태학적 특성과 철자적 특성이 한글과 다르기 때문이며 (방추상회부분(fusiform gyrus)과 중심전회부분(precentral gyrus)), 의미의 인출 및 사용빈도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브로카영역(Broca's area), 두정엽(parietal cortex))(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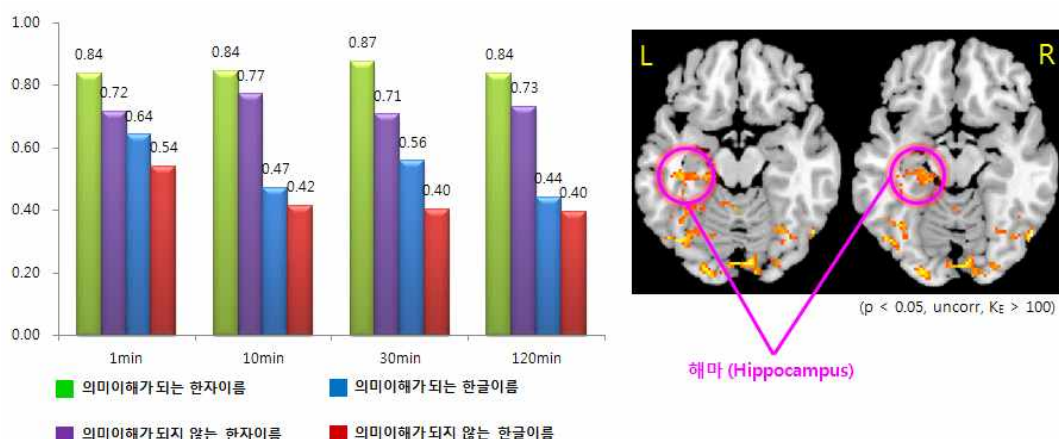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한자문자와 한글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뇌의 부위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자교육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평균나이 27세인 남녀 대학생 각 각 12명씩을 대상으로 2음절짜리 한자단어와 한글단어를 소리내지 않고 읽는 연구 : fMRI 실험 (자료제공: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소 기능자기공명영상팀)

한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문자하나가 비교적 제한된 의미의 형태소(morpheme)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한자는 새로운 합성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5,6 예를 들면, 뇌의 구조 중에 송과체 (pineal gland)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다. 이를 풀어 보면 “송과체(松果體); 소나무의 열매(솔방울) 모양의 구조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한자의 형태소적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방울의 모양이 서로 결합하면 견고한 어휘의 질을 형성하여 뇌 속에 저장되며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단어가 아닌 비 단어(사람이름)의 경우에도 한자문자가 기억에 유리한지를 평가하는 연구에서도 한자이름의 경우 의미의 이해와 관계없이 인지기억(recognition memory)에 유리하며 같은 문자 체계 안에서는 의미의 이해가 잘 될 수록 좋은 기억력을 보였다. 한자이름단어를 학습하는 동안에는 한글이름단어를 학습할 경우에 비해서 좌측 해마(hippocampus)를 비롯해 방추상회부분(fusiform gyrus)과 2차 시각영역의 뇌활성화가 증가되어 나타난다(그림 2).

아래에 보여 주고 있는 자료는 2음절 한자이름과 한글이름을 실험자극으로 하여 자극제시 후 1분부터 120분까지 의미의 이해도에 따른 인지기억력의 정답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2] 한자비단어와 한글비단어 인지기억력검사:fMRI 실험 (자료제공: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소 기능자기공명영상팀)

참고문헌

1. Lee, K. M. (2004). "Functional MRI comparison between reading ideographic and phonographic scripts of one language." *Brain Lang* 91(2): 245-51.
2. Usui, K., A. Ikeda, et al. (2005). "Processing of Japanese morphogram and syllabogram in the left basal temporal area: electrical cortical stimulation studies." *Brain Res Cogn Brain Res* 24(2): 274-83.
3. Kwon, J. C., H. J. Lee, et al. (2002). "Hanja alexia with agraphia after left posterior inferior temporal lobe infarction: a case study." *J Korean Med Sci* 17(1): 91-5.
4. Craik, F. I. M., & Lockhart, R. S. (1972).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for memory researc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671-684.
5. Ashlee S., Alexander P. D. et al. (2011), "Individual differences and lexical learning: Links to memory for faces, things and words". *CogSci 2011 Proceedings*

한글漢字 자동변환기술 및 응용소프트웨어

玉哲榮(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 目 次 -

1. 序 論
2. 관련 연구
 - 2.1 품사 Tagging 모델
 - 2.2 同形異義語 태깅 모델
 - 2.3 한글漢字 변환 시스템
3. HMM을 이용한 품사·동형이의어 태깅
 - 3.1 착안점
 - 3.2 단계별 전이 모델
 - 3.3 후보 빈도 적용
 - 3.4 전이빈도 가중치
 - 3.5 최소 전이점수
 - 3.6 태깅시스템(UTagger) 구현
 - 3.7 실험과 결과 분석
4. 한글漢字 자동변환 및 응용소프트웨어
 - 4.1 한글漢字 자동변환
 - 4.2 Web문서 한글漢字 일괄변환
5. 結論 및 향후 연구

〈抄錄〉

워드프로세서에서의 한자 변환 시에 음절/단어 단위의 한자선택을 위한 다수의 key stroke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며, 해당 의미의 한자를 알지 못하면 한자변환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 문장의 의미처리를 통해 문맥에 맞는 한자를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문맥에 맞는 한글-한자 변환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형태소 분석 및 동형이의어 분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既 분석 부분 어절 기반의 형태소분석기를 개발하였고, 단계별 전이모델의 품사 및 동형이의어 동시 태깅(Tagging)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구현한 시스템은 형태의미 세종 말뭉치 1,100만여 어절을 이용하여 어절의 생성확률과 어절 간의 전이확률 학습사전을 구축하였다.

입력 문장은 형태소 및 동형이의어로 분별된 후 한자변환사전에 등재된 어휘를 대상으로 한자로 변환하며, 기존의 KSC-5601에서 지원되지 않는 한자를 위해 한자변환 시에 별도로 유니코드(UTF16)를 지원하도록 응용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웹문서를 대상으로 한자를 변환하되 한·중·일 공통상용한자 800자에 대해 각국의 한자로 변환되게 하였으며, 선택적으

로 한자능력검정시험의 급수별로 한자를 변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序 論

한국어의 어휘는 순수한 고유어와 漢字語 그리고 借用語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된 507,000여개의 표제어 중 288,600 어휘(56.92%)가 한자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굳이 한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상당수의 전문용어나 학술용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글로만 표기할 경우에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또한, 288,600여개의 한자어 어휘 중에서 84,000여개가 동형이의어이다. 이러한 동형이의어의 경우는 한자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사기가 참 화려하네...”라는 문장에서 ‘사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27개 동형이의어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史記(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 私記(사사로운 기록), 事記(사건의 기록), 社基(회사의 기초), 社旗(회사를 상징하는 깃발) 등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회사(會社)의 사기(社旗)가 참 화려하네...”라고 병기 혹은 변환하면 그 의미 전달이 보다 명확해진다.

본 논문은 정확한 문맥 파악을 위한 한국어의 형태소 및 동형이의어 태깅(Tagging)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한 ‘한글漢字 자동변환 응용소프트웨어’를 소개한다.

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한국어 품사 및 동형이의어 태깅, 그리고 한자 변환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이해 및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품사 Tagging 모델

각 어절의 분석 후보들이 생성된 후에는, 하나의 적절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우선 인접한 어절정보가 사용되며, HMM을 적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초기에 대용량의 말뭉치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체로 자체 제작한 소량의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학습량 부족 현상을 줄이고 재현율을 올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품사 태그(tag)를 사용하여 정확률을

높았다[1~3]. 그러나 소량의 말뭉치로는 충분한 정확률이 나오지 않았지만, 소량의 말뭉치로 초기에 HMM의 유용성을 실험해 본 의미 있는 연구들이었다[4].

연구[5]는 통계 기반 품사 태깅에서 많이 사용되는 HMM과 비터비 알고리즘(Viterbi algorithm)을 이용한 품사 태깅에서 사용되는 학습 말뭉치의 오류를 검출하였다. 사람의 수작업으로 구축되는 말뭉치의 특성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류에 대해서 저신뢰도 구간 검사를 통해 학습 말뭉치의 신뢰도를 높여 태깅 성능의 향상을 모색하였다.

[6]에서는 효율적인 어절 간 전이확률 계산 방법론을 고안함으로써 어절 단위의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자료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한국어의 형태통사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앞 어절의 마지막 형태소와 함께 뒤 어절의 처음 혹은 끝 형태소와의 전이 링크만으로도 어절 간 전이확률 계산 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문맥에 따라 두 링크 중 하나만 필요하다는 관찰을 토대로 규칙을 이용해 두 전이링크 중 하나를 선택해 전이확률을 계산에 사용하는 ‘다이나믹 링크 모델’을 제안했다. 어절 간 전이확률 계산이 끝나면 최적열을 구하기 위해 HMM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세종 말뭉치 460만 어절을 학습해 실험한 결과 96.60%의 정확률을 보였다.

연구[7]은 어절별 중의성 해소 규칙을 이용하여 품사 태깅을 하였다. 重義性 어절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공통규칙을 구축하였으며, 공통규칙은 어절별 중의성 해소 규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중의성 해소에 적용하였다. 공통규칙과 어절별 중의성 해소 규칙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절에 대해서는 트라이그램(trigram)을 이용하여 품사 중의성을 해결하였다. trigram으로 어절 간 전이확률을 구한 뒤 HMM으로 최적열을 구해 품사를 태깅했다. 품사 태깅 결과 97.93%의 정확률을 보였으나 실험 말뭉치는 1,000 문장의 17,384 어절로써 충분한 양의 데이터 실험으로 보기는 어렵고, trigram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에는 HMM을 이용한 연구[8~9]와 규칙 기반 연구[11], 그리고 선형 분리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12] 등이 있다. 이 중에서는 다양한 전이모델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뒤 HMM을 적용한 연구[8]이 정확률이 가장 높다.

2.2 同形異義語 태깅 모델

품사뿐만 아니라 의미번호를 구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연구[13]은 문맥에서 추출한 가중치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어 동사의 의미 중의성을 해소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중의성을 가진 단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그 단어의 의미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단어들로 의미 결정자 벡터를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 단계에서 입력된 단어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모델이다. 4개

의 한국어 동사에 대해 내부실험 결과 84%의 정확률이 나왔고 baseline을 기준으로 50%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14]에서는 한국어의 동형이의어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의 뜻풀이 말뭉치에서 구축한 의미정보와 이를 적용한 베이지안(Bayesian)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동형이의어 중의성 해소를 수행하였다. 동형이의어 분별에 사용되는 의미정보를 정제 및 분류할 필요가 있었으며 의미정보들 간의 가중치를 적용한 모델이었다.

[15]에서는 동형이의어 분별의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용한 구문 패턴을 바탕으로 사전 뜻풀이와 150만 어절의 말뭉치에서 어휘 共起 집합을 추출하여 동형이의어의 분별에 이용하였다. 전체적인 분별 과정은 구문패턴에 기반을 둔 모델을 이용하여 동형이의어를 분별하고, 用言類 동형이의어를 분별할 때에는 구문패턴에 기반을 둔 어휘 共起 집합의 어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소러스(thesaurus)를 이용한 어휘의 확장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빈도의 469개 동형이의어를 대상으로 실험결과 92.23%의 정확률을 보였다. 시소러스를 이용할 경우 동형이의어 분별에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6]에서는 문헌의 내용을 대표하는 색인어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작업 태깅 없이 기계가독형 사전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의미를 태깅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의미 태깅된 언어자원의 제약으로 사전만을 이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경우 단일 모형에서는 복수의 자질 축소 기준을 적용한 사전 추출 정보 기반 방법을 이용하여 중의성 단어의 의미를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모형과 이들의 결과를 결합한 모형 중에서는 결합 모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17]에서는 상호정보량과 기분석된 복합명사 의미사전에 기반을 둔 동음이의어 중의성 해소를 위한 기술을 소개하였다. 어휘들 간의 연관계수인 상호정보량을 이용함으로써 자료부족 현상을 완화시켰으며, 언어적인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호정보량을 가지는 어휘쌍 비율을 가중치, 의미별 비율 가중치, 뜻풀이의 길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가중치들이 어휘 의미 중의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어휘 의미 분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연구[18]은 한국어 어휘의미망을 이용하여 동형이의어의 중의성 해소 기술을 제안하였다. 중의성 어휘와 共起 어휘 간 연관성을 카이제곱(chi-square) 통계량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語義 重義性 해소에 이용하였다. 한국어 어휘망에서 중의성 어휘의 의미별 관계어를 찾고, 이들과 공기 어휘 간 공기 빈도를 대규모 말뭉치로부터 획득하여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한다. 이때 가장 큰 카이제곱 통계량을 가지는 관계어의 의미가 중의성 어휘의 의미가 된다. 이 방법으로 10개의 중의성 어휘에 대하여 평균 86.2%의 어의 중의성 해소 정확도를 보였다. 의미 부착 말뭉치를 구축하지 않고 중의성 해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실용성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연구[19]는 비교적 최근의 HMM 연구로, 약 천만 어절의 세종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우선 어절별로 분석 후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본적 부분어절 기반의 형태소 분석기[22]를 사용하였으며, 하나의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HMM을 단계별로 적용하였다. 우선 정확률이 높은 모델을 적용해 보고, 재현에 실패한 경우(학습된 적이 없는 경우다.) 정확률이 낮더라도 재현율이 높은 모델을 적용하였다. 동형이의어까지 태깅하면서 정확률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

HMM의 느린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고 빠른 확률 모델을 사용한 연구[20]이 있었다. 현재 어절의 분석 후보와 뒤 어절의 처음 2음절과의 조건부 확률 또는 앞 어절의 마지막 2음절과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였다. HMM을 사용한 연구[19]보다 정확률이 조금 낮았지만 약 2배 빠른 정확률을 보였다.

대량의 원시 말뭉치들을 Roget의 카테고리들로 학습한 뒤에 Bayesian framework를 이용해 영어단어의 중의성을 해소한 연구[21]이 있었다. 천만 어절을 학습하였고 12개의 중의성을 가진 영어 단어에 대해 실험한 결과 92%의 정확률을 보였다. 초기에 원시 말뭉치를 이용한 기계학습형 자연어 처리의 대표적인 연구이다.

2.3 한글漢字 변환 시스템

한자 변환은 일반적으로 한글문서나 MS워드에서 직접 사용자가 변환시킬 한자를 보고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특히 이 경우 사용자가 한자를 모른다면 정확한 변환이 어려워진다.

[23]에서는 전문용어의 한자 변환을 위해 언어모델 및 변환모델을 이용한 문장 단위의 한자 자동 변환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사전 미등록어와 복합어의 한글-한자 변환을 위하여 단어분할을 변환의 숨김 과정으로 처리하는 통합모델을 사용하였다.

[24]에서는 품사 및 동형이의어 분별을 위해서 HMM 기반의 태깅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형태소 및 동형이의어로 분별된 결과에서 한자변환사전에 등재된 어휘의 한자를 변환(mapping)하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규칙기반의 형태소분석으로 인하여 형태소 분석의 정확률이 92.96%로 다소 낮았으며, 한자변환은 KSC5601의 4,880자의 한자만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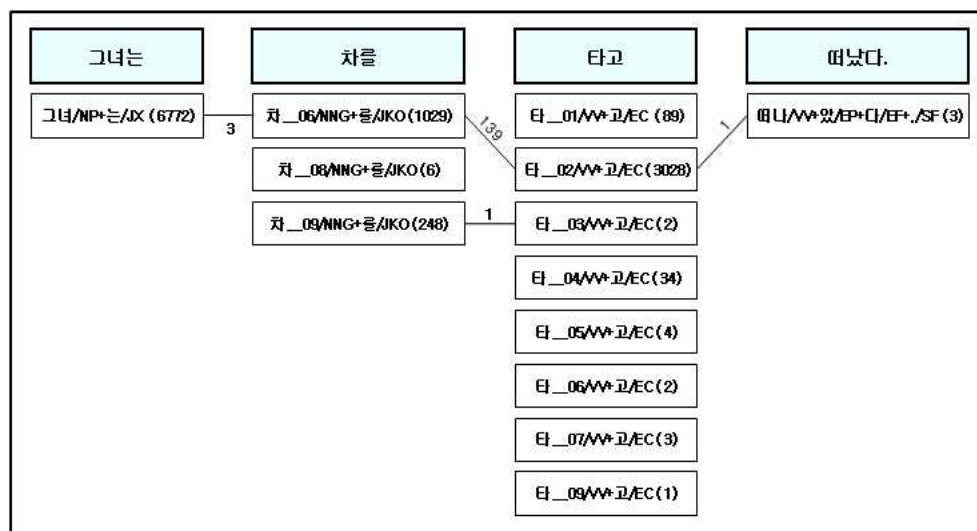
3. HMM을 이용한 품사·동형이의어 태깅¹⁸⁾

HMM이란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상태의 전이확률을 계산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열을 구하는 것이다. 이 상태열을 ‘최적열’이라 하며 Viterbi 알고리즘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어절의 분석 후보를 숨은 상태로 정의하여 HMM을 적용하면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3.1 착안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기본 착안점은 문장에서 어절의 품사와 동형이의어는 모두 좌우 문맥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그림 1]에서와 같이 품사 중의성이 있는 ‘나는’ 이라는 어절에 대한 품사 태깅 결과는 주변 문맥 정보에 의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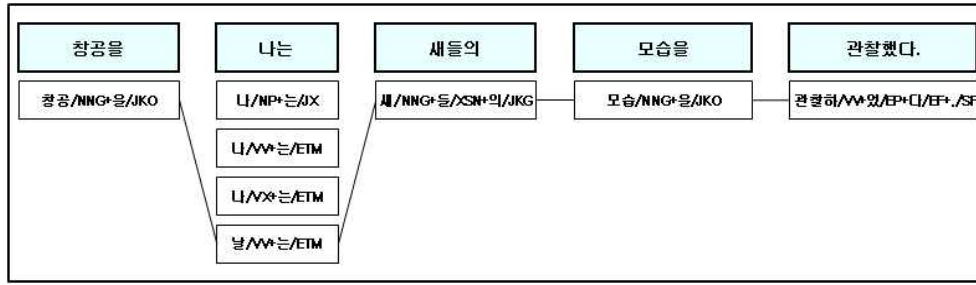


[그림 1] 동형이의어 태깅의 예

[그림 2]에서는 ‘차를’와 ‘타고’의 품사 태깅 결과는 동일하지만 ‘차/NNG’와 ‘타/VV’는 각각 명사와 동사인 동형이의어로서 의미적인 중의성을 가진다. 이 경우 [그림 1]의 ‘나는’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뭉치에서 학습된 주변 문맥 정보에 의해 각 단어의 동형이의어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와 같이 품사 태깅과 동형이의어 태깅은 모두 주변 문맥 정보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형태 의미 주석 세종말뭉치를 이용하여 하나의 모델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18) 3장은 연구 [19]의 내용을 재편집하였음.



[그림 2] 품사 태깅의 예

3.2 단계별 전이모델

HMM을 한국어 태깅에 활용할 경우의 가장 간단한 전략은 어절 단위의 분석 후보 전이빈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All morphemes of a word, All morphemes of the next word(AA).”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그녀는 차를 타고 떠났다.”를 분석할 경우 ‘그녀는 차를’, ‘차를 타고’, ‘타고 떠났다’의 인접 두 어절의 분석 결과인 ‘그녀/NP+는/JX 차_06(car)/NNG+를/JKO’, ‘차_06/NNG+를/JKO 타_02(ride)/VV+고/EC’, ‘타_02/VV+고/EC 떠나/VV+았/EP+다/EF’의 분석 결과가 말뭉치에 있는지 모두 찾아보는 것이다.

$$AA(a, b) = Freq(a, b) \quad (1)$$

식 (1)은 인접 두 어절의 분석 결과가 말뭉치에서 나타난 전이빈도로, a와 b는 각각 앞 어절과 뒤 어절의 형태소 분석 결과이다.

인접 두 어절 사이에는 앞 어절의 분석 결과(a) 개수와 뒤 어절의 분석 결과(b) 개수의 곱만큼 전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문맥상 유의미한 분석 결과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의 두 어절에 대해서 실제 1,000만 어절의 세종말뭉치에서 추출한 각 어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차를 차_06/NNG+를/JKO	1029	타고 타_01/VV+고/EC	89
차를 차_08/NNG+를/JKO	6	타고 타_02/VV+고/EC	3038
차를 차_09/NNG+를/JK	248	타고 타_03/VV+고/EC	2
		타고 타_04/VV+고/EC	34
		타고 타_05/VV+고/EC	4
		타고 타_06/VV+고/EC	2
		타고 타_07/VV+고/EC	3
		타고 타_09/VV+고/EC	1

그렇지만 ‘차를 타고’의 인접 두 어절의 출현 빈도는

차를 타고	차__06/NNG+를/JKO 타__02/VV+고/EC	139
차를 타고	차__09/NNG+를/JKO 타__03/VV+고/EC	1

의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차를 타고’에 대한 식 (2) 결과는 139와 1이 되고, 문장의 모든 어절 간에 전이를 가진 ‘차__06/NNG+를/JKO 타__02/VV+고/EC’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약 천만 어절의 세종말뭉치를 사용하였으며, 90%의 세종말뭉치를 기계학습하고 나머지 10%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다. 3.7절의 [표 1]에서와 같이 테스트 문장의 모든 인접 어절에 대해 학습말뭉치 중 33.66%만이 AA 전이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아무리 큰 규모의 말뭉치를 구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AA 전이모델만으로는 모든 인접 두 어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얻지 못하여 대부분의 문장에서 성공적으로 최적열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AA 전이빈도가 0인 인접 두 어절에는 다른 전이모델이 필요하다. 말뭉치에서 AA보다 신뢰도가 낮더라도 좀 더 추상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착어는 어휘형태소(실질형태소)인 어간에 문법형태소(형식형태소)인 어미 혹은 조사가 붙어 어절을 형성한다. 어휘형태소는 어휘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로 어떤 대상이나 상태, 동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타__02/VV’의 경우도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지만,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실제로 세종말뭉치에서 추출한 ‘(차를) 타__02/VV’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차를 타게	차__06/NNG+를/JKO 타__02/VV+게/EC	1
차를 타고	차__06/NNG+를/JKO 타__02/VV+고/EC	137
차를 타고,	차__06/NNG+를/JKO 타__02/VV+고/EC+./SP	2
차를 타기	차__06/NNG+를/JKO 타__02/VV+기/ETN	2
차를 타기도	차__06/NNG+를/JKO 타__02/VV+기/ETN+도/JX	1
차를 타느라고	차__06/NNG+를/JKO 타__02/VV+느라고/EC	1
차를 타는	차__06/NNG+를/JKO 타__02/VV+는/ETM	5
차를 타도	차__06/NNG+를/JKO 타__02/VV+아도/EC	1
차를 타러	차__06/NNG+를/JKO 타__02/VV+러/EC	3
차를 타려고	차__06/NNG+를/JKO 타__02/VV+려고/EC	2
차를 타려는	차__06/NNG+를/JKO 타__02/VV+려는/ETM	1
차를 타려면	차__06/NNG+를/JKO 타__02/VV+려면/EC	1
차를 타면	차__06/NNG+를/JKO 타__02/VV+면/EC	5
차를 타세요.	차__06/NNG+를/JKO 타__02/VV+세요/EF+./SF	1
차를 타야	차__06/NNG+를/JKO 타__02/VV+아야/EC	2
차를 타지	차__06/NNG+를/JKO 타__02/VV+지/EC	4
차를 타진	차__06/NNG+를/JKO 타__02/VV+지/EC+ㄴ/JX	1
차를 탄	차__06/NNG+를/JKO 타__02/VV+ㄴ/ETM	1
차를 탄다고	차__06/NNG+를/JKO 타__02/VV+ㄴ 다고/EC	1
차를 탈	차__06/NNG+를/JKO 타__02/VV+ㄹ/ETM	4
차를 탔다.	차__06/NNG+를/JKO 타__02/VV+았/EP+다/EF+./SF	6
차를 탔어요.	차__06/NNG+를/JKO 타__02/VV+았/EP+어요/EF+./SF	1

차를 탔었는데, 차__06/NNG+를/JKO 타__02/VV+았었/EP+는데/EC+./SP 1
차를 탔을 차__06/NNG+를/JKO 타__02/VV+았/EP+을/ETM 1
...

이렇게 다양한 문법형태소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어간(‘타__02/VV’)에 있다. 즉, 인접 두 어절에서 앞 어절의 의미가 결정되어 있다면 뒷 어절의 어간만으로도 두 어절의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접 두 어절에서 앞 어절의 전체 분석 형태와 뒷 어절의 첫 번째 형태소(어간)의 전이를 고려함으로써, AA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차를 타기로’)라도 태깅에 필요한 주요 의미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전이모델을 “All morphemes of a word, First morpheme of the next word(AF).”라고 정의한다.

식 (2)는 말뭉치에서 AF 전이빈도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a와 b는 각각 앞 어절과 뒷 어절의 형태소 분석 후보이며, FirstOf(b)는 b의 첫 번째 형태소이다.

$$AF(a, b) = Freq(a, FirstOf(b)) \quad (2)$$

인접 두 어절의 분석에서 AA 전이빈도가 존재할 경우는 AA 전이빈도를 사용하고, AA 전이가 없을 경우만 두 어절의 분석시 AF 전이빈도를 사용한다. 이는 두 어절 간에 AA 전이가 존재할 경우 신뢰도가 낮은 제한적인 정보(AF)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자료부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전이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단계별 전이모델’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준비된 차를 타기로 했다.”를 분석할 때, ‘차’는 교통수단(car, 의미번호 6)이거나 음료(tea, 의미번호 9)로 해석될 수 있어 모호하다. ‘차를 타기로’의 분석 결과가 AA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차__06/NNG+를/JKO 타__02/VV’와 ‘차__09/NNG+를/JKO 타__03/VV’의 빈도에 의해 확률적으로 ‘차’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다. 실제로 세종말뭉치에서 추출한 ‘차를 타__02/VV’의 전이빈도는 다음과 같다.

차__06/NNG+를/JKO 타__02/VV	188
차__09/NNG+를/JKO 타__03/VV	2

90% 학습말뭉치와 10% 테스트 문장을 실험한 결과 AF가 적용된 것은 18.42%였다(표 1 참조). 나머지 47.92%는 AA와 AF로는 처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희는 달구지에 타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는 문장에서 ‘달구지에 타고’의 경우 학습 말뭉치에서 AA, AF 형태로 발견되지 않아 다른 전이모델이 필요하다.

교착어에서 문법형태소는 문법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로 어휘형태소와 함께 쓰여 그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형태소는 ‘명사 용언’의 두 어절에서 용언이 요구하는 문형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문형을 가진 동형이의어 용언을 분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다’의 경우 동형이의어별로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문형을 가진다.

타__02/VV: [...에]I[...을]	{비행기에 타다, 자동차를 타다}
타__03/VV: [...에 ...을]	{우유에 선식을 타서 먹다}
타__04/VV: [...에서/에게서 ...을] : [...을]	{회사에서 월급을 타다, 좋은 팔자를 타고 났다}
타__05/VV: [...을]	{뚝으로 박을 타다}
타__06/VV: [...을]	{가야금을 타다}
타__07/VV: [(...을)] : [...을]	{이 옷은 때를 잘 탄다, 간지럼을 타다}
타__08/VV: [...을]	{숨을 탈 때가 되었나 보다}
타__09/VV: [...을]	{그것은 사람들 손을 타서 반들반들 때가 묻었다}

앞의 예의 ‘달구지에 타고’의 경우와 같이 학습 말뭉치에서 AA, AF 형태로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앞 어절의 마지막 형태소와 뒷 어절의 첫 형태소만 고려한다. 이 전이모델을 본 논문에서는 “End morpheme of a word, First morpheme of the next word(EF).”라고 정의한다. 인접한 두 어절 사이의 모든 전이에서 AA와 AF의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EF를 시도한다.

식 (3)은 말뭉치에서 EF 전이빈도를 반환하는 함수이다. 여기서 a와 b는 각각 앞 어절과 뒷 어절의 형태소 분석 후보이며, EndOf(a)는 a의 마지막 형태소이며 FirstOf(b)는 b의 첫 번째 형태소이다.

$$EF(a, b) = Freq(EndOf(a), FirstOf(b)) \quad (3)$$

앞서의 ‘달구지에 타고’의 예에서 실제 세종말뭉치에서 인접 두 어절에서 ‘달구지에’가 앞 어절로 출현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달구지에 꾸러 달구지__01/NNG+에/JKB	꾸리__01/VV+어/EC	1
달구지에 신고 달구지__01/NNG+에/JKB	신__01/VV+고/EC	1
달구지에 실려 달구지__01/NNG+에/JKB	실리__01/VV+어/EC	1
달구지에 앉아 달구지__01/NNG+에/JKB	앉/VV+아/EC	1

또한, ‘에/JKB 타/VV’는 다음과 같이 학습되어 있다.

에/JKB 타__01/MM	3
에/JKB 타__01/VV	144
에/JKB 타__02/VV	270
에/JKB 타__03/VV	57
에/JKB 타__04/VV	2
에/JKB 타__05/VV	1

따라서, EF의 전이빈도를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타/VV’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다.

테스트 문장 전체에서 AA와 AF를 실패하여 34.75%에서 EF가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표 1) 참조).

마지막으로 AA, AF, EF까지 실패한 경우로, 오직 앞 어절과 뒷 어절의 개별적인 어절의 분석 빈도만을 계산한다. 즉, 실제로는 전이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모델은 최후에 사용되며, 이 방법을 “Frequency of a word, Frequency of the next word(FF).”라고 정의한다. <수식 4>가 FF를 계산하는 수식이다. $Freq(a)$ 는 분석 후보 a 의 출현 빈도를 의미한다.

$$FF(a, b) = Freq(a) \times Freq(b) \quad (4)$$

3.3 후보 빈도 적용

AF와 EF는 어절의 일부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솔직한 사과인사’를 분석한다고 가정하면, 형태소 분석기가 뒤 어절 ‘사과인사’를 복합명사로 분해하여 다양한 후보를 만든다. 그리고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AF만 적용하면 ‘인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사과__05/NNG+인사__02/NNG (apple+bow)	: 100
사과__08/NNG+인사__02/NNG (apology+bow)	: 82
사과__05/NNG+인사__03/NNG (apple+affairs)	: 56
사과__05/NNG+인사__01/NNG (apple+personage)	: 9
사과__08/NNG+인사__01/NNG (apology+personage)	: 8

위의 내용은 실제로 2장의 PWD 알고리즘이 ‘사과인사’를 분석한 후보들이다. 각 줄의 우측 숫자가 ‘사과인사’ 그 자체만을 분석한 어절 점수이며, 아직 태깅(단계별 전이모델)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어절 점수는 ‘사과__05/NNG+인사__02/NNG (apple+bow)’ 조합이 가장 높지만, AF를 적용하면 앞 어절의 ‘솔직하/VA+ㄴ/ETM’과 뒷 어절의 첫 형태소 ‘사과__08/NNG’의 전이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과__08/NNG’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사과__08/NNG’를 포함하는 후보는 2개다. AF 전이빈도로는 이 두 개의 후보가 동등하다면 어절 점수가 높은 것이 선택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 따라서 정답인 ‘사과__08/NNG+인사__02/NNG (apology+bow)’를 선택할 수 있다.

$$AFU(a, b) = Freq(a, FirstOf(b)) \times Freq(b)^{weightB} \quad (5)$$

식 (5)는 AF에서 뒷 어절의 후보 빈도 $\text{Freq}(b)$ 가 추가된 것이다. 만약 $\text{Freq}(b)$ 가 전이빈도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위의 예에서 후보 빈도가 가장 높은 후보(apple, bow)가 선택되는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다. 따라서 weightB 를 적용하였다. weightB 는 0~1사이의 값으로 실험을 통해 최적값을 결정한다.

EF도 AF와 마찬가지로 일부 형태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 어절과 뒤 어절의 후보 빈도를 곱할 필요가 있다. 식 (6)은 EF에 앞 어절의 점수와 뒤 어절의 점수를 적용한 것이다. weightA 는 앞 어절 후보의 가중치이며 weightB 와 마찬가지로 실험을 통해 0~1사이에 값을 결정한다.

$$EFU(a, b) = \text{Freq}(\text{EndOf}(a), \text{FirstOf}(b)) \times \text{Freq}(a)^{\text{weightA}} \times \text{Freq}(b)^{\text{weightB}} \quad (6)$$

3.4 전이빈도 가중치

HMM으로 최적열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전이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2가지 이상의 전이 모델이 한 문장에서 나타나면, 예를 들어 AF와 EF가 한 문장에서 같이 나타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로 “준비된 차를 따르라”를 분석한다고 가정하자. ‘준비된’에서 ‘차를’로 전이는 실제로 EF로 분석되고 ‘차를’에서 ‘따르라’로 전이는 AF로 분석된다.



[그림 3] AF와 EF 전이 적용의 예

[그림 3]은 이러한 예를 자세히 보여준다. ‘준비된/VV+ㄴ/ETM’에서 ‘차_06’으로 전이하는 EF모델의 빈도는 155이며 ‘차_09’로 전이빈도는 35로 값의 비율은 약 5:1이다. 그 다음에 오는 AF빈도는 ‘따르_01(pour)’에 2, ‘따르_02(follow)’에 6으로 1:3의 비율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EF는 AF보다 빈도가 높으며, 빈도의 비율 차이도 크다. 왜냐하면 전이빈도를 구하는 방법이 더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HMM에서는 비율 차이가 심할수록 최적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FF가 가장 영향력이 커지고 그 다음으로 EF, AF, AA가 된다. 예를 들어 [그림 3]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율 차이가 더 큰 EF에 의해 ‘차_06(car)’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그것과 연결된 ‘따르_01(pour)’가 정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상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이모델에 따라 전이빈도의 평균적인 비율 차이가 다른데, 신뢰도는 그와 반대로 AA가 가장 높고 AF, EF, FF순으로 높기 때문에 전이모델마다 전이가중치를 부여해서 비율 차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전이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식 (7), (8), (9)이다. 이 가중치들은 모두 0에서 1사이의 값이며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정확률이 높아지도록 결정한다.

$$AFW(a, b) = Freq(a, FirstOf(b))^{weightAF} \times Freq(b)^{weightB} \quad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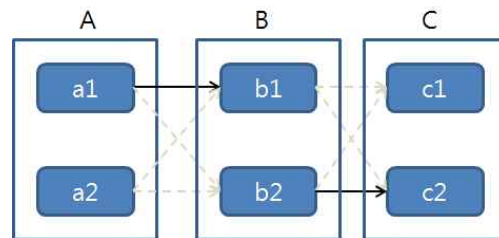
$$EFW(a, b) = Freq(EndOf(a), FirstOf(b))^{weightEF} \times Freq(a)^{weightA} \times Freq(b)^{weightB} \quad (8)$$

$$FFW(a, b) = (Freq(a) \times Freq(b))^{weightFF} \quad (9)$$

3.5 최소 전이점수

단계별 전이모델은 자료 부족이 심하더라도 FFW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어절 사이의 모든 전이가 0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AA와 AFW, EFW가 적용되면 인접한 두 어절 사이에서 일부 전이가 0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두 번 연속될 경우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전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간단한 예가 [그림 4]이다. A, B, C는 어절이고 a1과 a2는 A의 분석 후보이다. 마찬가지로 b1과 b2는 B의 후보, c1과 c2는 C의 후보다. A에서 B로의 전이와 B에서 C로의 전이는 존재하지만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전이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A, B, C로 구성된 문장이 가지는 모든 열은 확률이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라도 최적열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두 어절 간 전이빈도가 0일 경우 충분히 작은 최소 전이점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식 1, 2, 3>에서 전이빈도가 1이상일 경우 전이점수는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 전이점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이어야 한다.



[그림 4] 복합적으로 전이가 끊어지는 경우

식 (10)은 어절 A의 분석 후보 a와, 어절 B의 분석 후보 b 사이의 기본 전이점수를 계산하는 함수다.

$$MF(a, b) = \frac{Freq(a) \times Freq(b)}{MaxFreq(A) \times MaxFreq(B)} \times weightM \quad (10)$$

MaxFreq(A)는 어절 A의 분석 후보 중(a를 포함)에서 가장 높은 어절 빈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 [그림 2]의 ‘차를 타고’의 경우 ‘차_06/NNG+를/JKO 타_02/VV+고/EC’와 ‘차_09/NNG+를/JKO 타_03/VV+고/EC’의 전이만 발견되었다면, ‘차_06/NNG+를/JKO 타_09/VV+고/EC’ 전이는 $(1029 \times 1) / (1029 \times 3028) \times weightM$ 의 전이점수를 가진다. 만약 a가 A에서 어절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이고, b도 B에서 어절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라면 MF(a, b)는 weightM이 된다. weightM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으로 실험을 통해 최적값을 선택한다.

3.6 태깅시스템(UTagger) 구현



[그림 5] 전이모델 적용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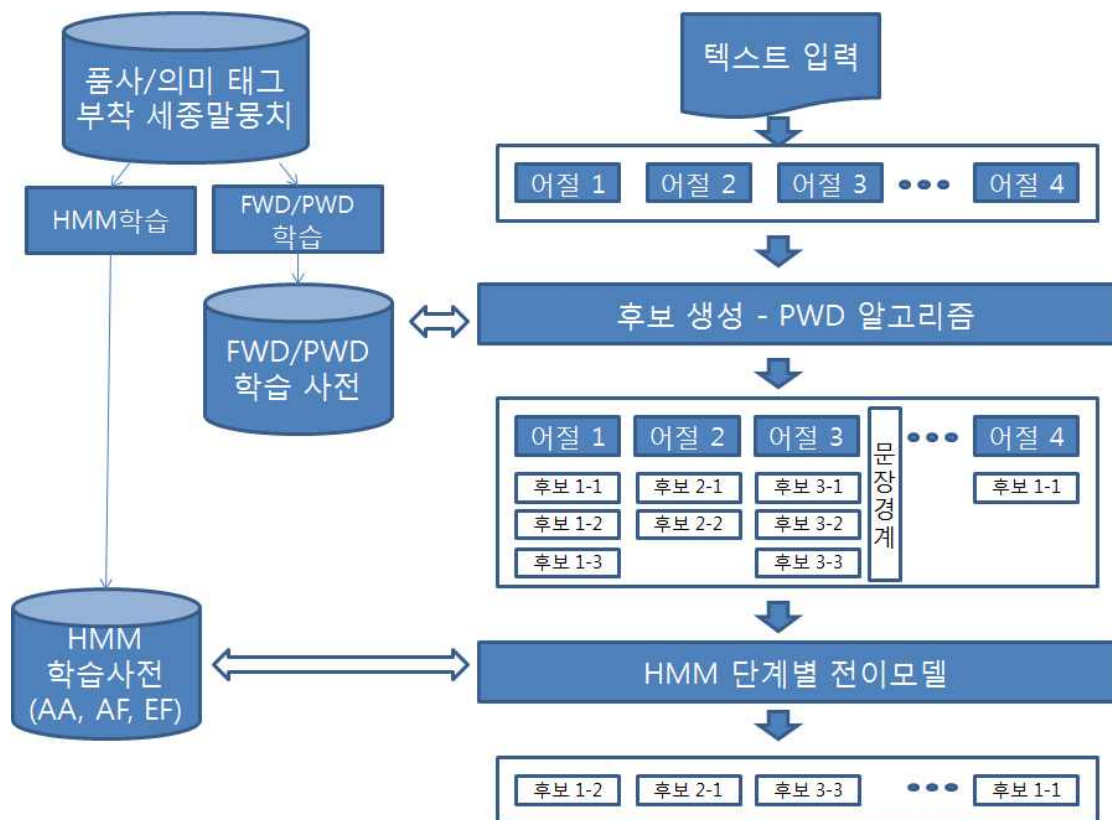
단계별 전이모델은 다음 [그림 5]의 순서로 적용된다. 문장의 첫 어절 빈도를 적용하면서 시작하고 어절 간 전이점수는 3가지 모델(AA, AFW, EFW)을 단계별로 적용하고 모두 실패하면 FFW를 계산한다. 그리고 HMM으로 최적열을 구하기 위해 Viterbi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Viterbi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열이 결정된 후에 규칙 기반의 후처리가 적용된다. 규칙 기반 후처리에서는 특정 품사 태그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문장의 끝 어절이 연결어미 태그(EC)를 가진 경우 종결어미 태그(EF)로 바꾼다. 또한, 조사 ‘과/와’는 문맥에 따라 접속조사 혹은 부사격조사로 사용되며, 단순히 인접 두 어절만으로 정확한 품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조사 ‘과/와’의 좌 우 품사가 동일한 경우는 ‘과(와)/JC’로 그렇지 않으면 ‘과(와)/JKB’로 변

경한다. 비슷하게 조사 ‘(이)나’는 접속조사 혹은 보조사로 사용된다. 조사 ‘(이)나’의 경우 다음 어절의 첫 형태소가 용언(VV, VA)이거나 부사(MAG)일 경우 ‘(이)나/JX’로 변경한다.

이러한 규칙기반 후처리 과정은 Viterbi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열을 결정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의 단계별 전이모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6]은 단계별 전이모델을 이용한 품사 및 동형이의어 태깅시스템(UTagger)의 전체 개념도이다. 처음에 입력된 내용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어절 단위로 분리한다. 각 어절들은 PW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후보들을 생성하고, 각 후보들은 문장의 경계를 인식하는데 사용된다. 입력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한 줄에 하나의 문장이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나, 한 줄에 두 개의 문장이 입력될 경우는 문장을 분리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하나의 문장이 여러 줄에 걸쳐 입력된 경우는 줄 단위로 문장으로 취급하여 처리한다. 문장 단위로 나뉜 어절들과 그 후보들은 ‘HMM 단계별 전이모델’을 거쳐서 하나의 후보들만 선택된다.



[그림 6] UTagger 시스템 개념도

3.7 실험과 결과 분석

본 논문이 제안하는 단계별 전이모델이 자료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험하기 위해 천만 어절의 세종 말뭉치에서 문장 단위로 90%를 학습하고, 나머지 10%를 정답세트 및 실험말

문치로 선택하였다(세종말문치의 문장별로 1~9번째 문장은 학습말문치로 10번째 문장을 실험말문치로 선정). 세종 태그세트의 품사 태그와 동형이의어 의미 번호를 모두 맞춘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3.7.1 전이모델별 성능

[표 1]은 전이모델별 학습 용량과 처리 비율을 표시한다.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는 AA가 용량이 크며 EF로 갈수록 작아진다. 처리 비율이란 단계별 전이모델을 수행하면서 자료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처리한 전이모델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A의 처리 비율은 AA의 전이빈도가 1 이상인 경우가 실험말문치의 모든 전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의미한다. 처리 비율을 계산할 때에 한 문장이 한 어절로 이루어진 경우는 전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AA의 처리 비율은 33.66%이며, AA에 실패하여 AF를 시도하게 되고 이 때 처리 비율은 18.42%에 해당한다.

〈표 1〉 전이모델별 학습 용량과 처리 비율

전이모델	AA	AF	EF	FF
학습 용량(MB)	574	320	81	학습 불필요
처리 비율	33.66%	18.42%	34.75%	13.17%

〈표 2〉는 전이모델의 사용여부에 따라 전체 정확률을 측정한 것이다. 〈표 2〉에서 1번은 모든 전이모델을 단계별로 사용한 결과이다. 2번은 AA를 시도하지 않고 바로 AF부터 검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경우 AF의 처리 비율은 AA의 처리비율인 33.66%와 18.42%를 더한 52.08%가 된다. 3번은 AA와 AF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4번은 AF만 사용, 5번은 HMM을 사용하지 않고 FF만 사용한 것이다. 5번은 어절별로 후보의 개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여 태깅하는 것과 같으며 실험의 base line으로 삼았다.

〈표 2〉 전이모델과 정확률

번호	사용 전이모델	전체 정확률
1	AA, AF, EF	96.4909%
2	AF, EF	96.4881%
3	EF	95.8601%
4	AF	96.2221%
5	(FF만 사용)	94.1744%

〈표 2〉를 분석하면 AA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확률이 약 0.006%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용량(386MB)은 크고 정확률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AF부

터 사용하는 <표 2>의 2번을 제안한다.

AA 전이모델을 제외하고 속도를 실험한 결과 111만 어절(7.7MB)을 태깅하는 동안 HMM에서 소요된 시간은 21.1초다. PWD-L옵션을 사용하여 일부 후보 수를 줄였을 때에는 20.0초 소요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는 windows 7 OS, Intel i7 860 CPU이며 모든 학습 데이터를 주 메모리에 로드하여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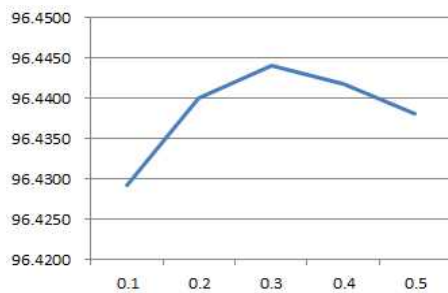
3.7.2 가중치 실험 결과

식 (7), (8), (9)의 가중치를 조절하면서 정확률을 조사한 결과를 [그림 7~12]의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표 3>에 표시한 대로 가중치를 설정하였을 때 최대 정확률을 보였다. [그림 7]은 weightM을 변경하면서 실험한 결과이며, 다른 가중치들은 <표 3>의 값을 사용한 것이다. [그림 8~12]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실험에서는 1개의 가중치만 변경하고, 다른 가중치들은 <표 3>의 값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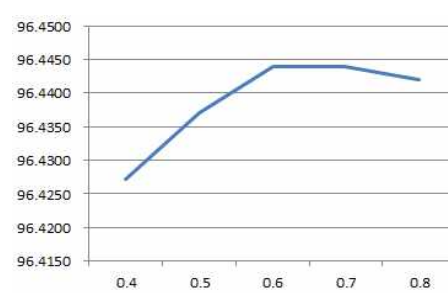
<표 3> HMM 가중치

weightM	weightAF	weightEF	weightFF	weightA	weightB
0.3	0.6	0.25	0.5	0.4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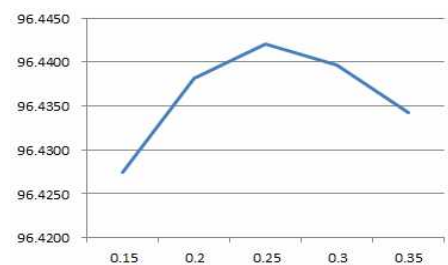
AF전이모델이 EF보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weightAF가 weightEF보다 높다. 그리고 weightA가 weightB보다 높게 나온 것은, 어절의 첫 형태소(실질형태소)가 마지막 형태소(문법형태소)보다 동형이의어 분별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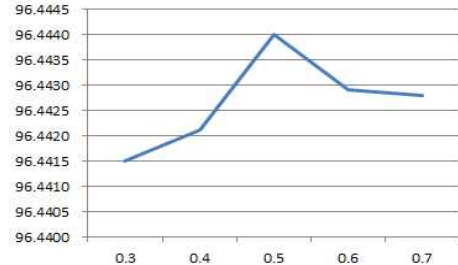
[그림 7] weig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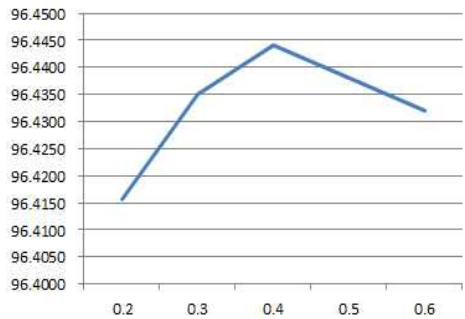
[그림 8] weight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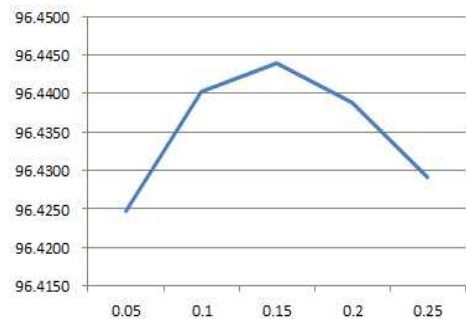
[그림 9] weightEF



[그림 10] weightFF



[그림 11] weightA



[그림 12] weightB

3.7.3 비교 실험

비교적 최근의 다른 실험들과 비교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냈다. 태깅 시스템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최대한 환경을 맞추어 비교하였다. 연구 [6]은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세종 말뭉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형이의어를 태깅하지 않고 96.60%가 나와 본 논문이 제안하는 단계별 전이모델과 비슷한 정확률을 보인다.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단계별 전이모델로 동형이의어를 제외하고 품사 태깅 결과만 비교한 결과 정확률은 97.40%로 연구[6]보다 더 높아 단계별 전이모델이 우수함을 보인다.

연구[7]은 ETRI 말뭉치와 태그세트를 사용한다. ETRI 태그의 경우 조사태그는 {JO}로 하나 인 데 비해, 세종 조사태그는 {JKS, JKO, JKB, JKC, JKG, JKB, JKV, JKQ, JX} 등으로 9개로 세분되어 있으며, 어미태그의 경우도 ETRI 태그의 경우는 {EM, EP}인 데 비해 세종 어미태그는 {EC, EF, EP, ETM}로 세분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논문의 결과만을 비교했을 경우 ETRI의 품사 태깅 정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연구[7]은 소규모로 일부 어절만을 테스트하였으며 오직 한글 어절에만 테스트하였다.

연구[7]과 단계별 전이모델을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단계별 전이모델로 기호가 없는 한글 어절만을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조사와 어미를 ETRI 태그세트와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98.23%라는 더 높은 정확률을 보였다. 이것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단계별 전이모델이 동형이의어를 태깅할 수 있으며 품사 태깅에서 연구[7]보다 정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4> 정확률 비교

	동형이의어 태깅여부	품사태그 세트	말뭉치	정확률	비 교
단계별 전이모델	O	세종	세종 1천만 어절	96.49%	+0.80%
단계별 전이모델	X	세종	세종 1천만 어절	97.40%	
다이나믹 링크 모델[6]	X	세종	세종 460만 어절	96.60%	
단계별 전이모델	X	ETRI	세종 1천만 어절 중 한글 어절	98.23%	+0.30%
혼합형 품사 태깅 시스템[7]	X	ETRI	학습 : ETRI 말뭉치 테스트 : - ETRI 200어절, - 세종 800어절	97.93%	

4. 한글漢字 자동변환 및 응용소프트웨어

4.1 한글漢字 자동변환

입력 문장에 대한 형태소 분석, 품사 및 동형이의어를 분별한 결과에서 한자를 가진 어휘들을 한자 변환을 위해 본 시스템은 다음 <표 5>와 같은 변환 파일을 가지고 있다.

25073	관격	關格	關格	关格	關格	5
25074	관견	官見	官見	官見	官見	4
25075	관결	官決	官決	官決	官決	4
25076	관경__01	官景	官景	官景	官景	4
25077	관경__02	官徑	-	-	-	3
25078	관경__03	觀經	觀經	观經	觀經	4
25079	관경__04	觀境	觀境	观境	觀境	4
25080	관경대	觀耕臺	觀耕臺	观耕臺	觀耕臺	3
25081	관계__01	官契	官契	官契	官契	3
25082	관계__02	官界	官界	官界	官界	4
25083	관계__03	官桂	官桂	官桂	官桂	3
25084	관계__04	官階	官階	官階	官階	4
25085	관계__05	關係	關係	关系	關係	4
25086	관계__06	關契	關契	关契	關契	3
25087	관계개념	關係概念	關係概念	关系概念	關係概念	3
25088	관계관	關係官	關係官	关系官	關係官	4
25089	관계관념	關係觀念	關係觀念	关系观念	關係觀念	4
25090	관계국	關係國	關係國	关系国	關係国	4
25091	관계논리학	關係論理學	關係論理學	关系论理学	關係論理學	4
25092	관계대명사	關係代名詞	關係代名詞	关系代名詞	關係代名詞	3
25093	관계망상	關係妄想	關係妄想	关系妄想	關係妄想	3
25094	관계부사	關係副詞	關係副詞	关系副詞	關係副詞	3

<표 5> 한자 변환 파일

<표 5>에서 첫 번째 칸은 한자를 가진 모든 한글어휘(동형이의어 포함), 두 번째 칸은 한국한자, 세 번째 칸은 대만한자, 네 번째 칸은 중국한자, 다섯 번째 칸은 일본한자이며 여섯 번째 칸은 한자능력검정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각 국가의 한자는 한·중·일 공통상용한자 800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경__02’의 한자 ‘管徑’에서 ‘管’은 한·중·일 공통상용한자 800자가 아니며 변환하지 않았다.

UTagger 시스템은 한자 변환시[그림 13]과 같이 한자변환/한자병기의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공하며, 한자능력검정 등급에 따라 변환이 되게 하여 한자 학습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림 13] 한자변환시 선택사항

4.2 Web문서 한글漢字 일괄변환

웹문서에서의 한글 문장을 형태소분석, 품사 및 동형어미어 분별한 후 한자로 자동 변환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그림 14]는 현재 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 서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화면이다. [그림 14]의 붉은색 네모박스에서 임의의 URL을 입력하며 그 URL의 웹문서를 한자로 변환/병기할 수 있으며, 한·중·일 공통상용한자 800자 및 한자능력검정 등급별로 한자를 변환할 수 있다.



[그림 14] 웹문서 한자변환 소프트웨어

5. 結論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한글한자 자동변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어 형태소분석, 품사 및 동형이의어 태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품사 및 동형이의어 주석된 세종말뭉치를 학습하였으며, HMM 기반의 단계별 전이 모델을 개발하여 품사 및 동형이의어를 태깅하였다.

규칙기반의 형태소분석기의 성능향상을 위해 세종말뭉치의 기분석 어절에서 기분석 부분 어절 사전 기반의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하여 형태소분석의 정확률을 5%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세종 말뭉치의 11,000,000 어절을 사용하였으며, 태깅 결과 96.49%의 정확률을 나타내었다. 현재의 정확률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접 두 어절의 단계별 전이 외에도 어절 간의 의존관계 분석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11,000,000 어절의 학습말뭉치를 확장하여 분석 정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文語 외에도 구어체 및 고문 등 다양한 문헌을 대상으로 학습말뭉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신중호, 한영석, 박영찬, 최기선, <어절구조를 반영한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품사태깅>,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학술대회, pp. 389-394, 1994. 10.
- [2] 김재훈, 임철수, 서정연,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효율적인 한국어 품사의 태깅>, 정보과학회논문지, 제22권, 제1호, pp.136-146, 1995. 1.
- [3] 강유환, 서영훈, <어절간 주품사 정보와 제약 규칙을 이용한 한국어 품사 태깅 시스템>, 제11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pp.433-437, 1999. 10.
- [4] 김영훈, <한국어에 적합한 효율적인 품사 태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권, 제2호, pp.98-102, 2002. 6.
- [5] 설용수, 김동주, 김규상, 김한우, <말뭉치 오류를 고려한 HMM 한국어 품사 태깅 시스템>,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17-124, 2007.
- [6] 황명진, 강미영, <한국어 품사 태깅을 위한 다이내믹 링크 모델>, 제1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pp.282-289, 2007.
- [7] 박희근, 안영민, 서영훈, <어절별 중의성 해소 규칙을 이용한 혼합형 한국어 품사 태깅 시스템>, 정보과학회논문지 :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제13권, 제6호, p.427-431, 2007. 11.
- [8] Scott M. Thede, Mary P. Harper, <A Second-Order Hidden Markov Model for Part-of-Speech Tagging>, In Proceedings of the 37th of ACL, p.175-182, 1999.
- [9] Julian Kupiec, <Robust part-of-speech tagging using a hidden Markov model>, Computer Speech and Language, 6(3):225-242, 1992.
- [10] Eugene Charniak, Curtis Hendrickson, Neil Jacobson and Mike Perkowitz, <Equations for part-of-speech tagging>, Proceedings of the Eleventh 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pages 784-789,

72 東洋古典 現代化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3.

- [11] Eric Brill, 〈Transformation-based error-driven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 case study in part of speech tagg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21(4):543-565. 1995.
- [12] Dan Roth and Dmitry Zelenko, 〈Part of speech tagging using a network of linear separators〉, Proceedings of COLING-ACL '98, pages 1136-1142, 1998.
- [13] 임수종, 박영자, 송판석, 〈가중치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동사의 의미 중의성 해소〉, 제1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pp.425-429, 1998. 10.
- [14] 김준수, 최호섭, 옥철영, 〈가중치를 이용한 통계 기반 한국어 동형이의어 분별 모델〉,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30권 제11·12호, 2003. 10.
- [15] 이왕우, 〈어휘공기집합과 시소러스를 활용한 동형이의어 분별시스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 [16] 이영구, 정영미, 〈사전 정보를 이용한 단어 중의성 해소 모형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논문지, 제24권, 제1호, 2005.
- [17] 허정, 서희철, 장명길, 〈상호정보량과 복합명사 의미사전에 기반한 동음이의어 중의성 해소〉,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33권, 제12호, pp.1073-1089, 2006. 12.
- [18] 김민호, 권혁철, 〈한국어 어휘의미망의 의미 관계를 이용한 어의 중의성 해소〉,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38권, 제10호, p.554-564, 2011. 10
- [19] 신준철, 옥철영, 〈한국어 품사 및 동형이의어 태깅을 위한 단계별 전이모델〉,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39권, 제11호, pp.889-901, 2012.
- [20] 신준철, 옥철영, 〈한국어 품사 및 동형이의어 태깅을 위한 마르코프 모델과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비교〉, 제25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p.152-155, 2013. 10
- [21] David Yarowsky, 〈Word-sense disambiguation using statistical models of Roget's categories trained on large corpor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Proceedings of the 14th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Volume 2), pp.454-460, 1992.
- [22] 신준철, 옥철영, 〈기분적 부분 어절 사전을 활용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39권, 제5호, p.415-424, 2012. 5
- [23] 황금하, 배선미, 최기선, 〈전문용어 한글-한자 자동 변환〉, 《한국정보과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31권 1호, 2004.
- [24] 김홍순, 신준철, 옥철영, 〈의미처리 기반의 한글-한자 변환시스템〉,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제1호, 2011.

동양고전어휘정보화의 방법 및 활용 방안

2013. 11. 20

김 현, 윤종웅, 안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어휘 정보화의 방법 및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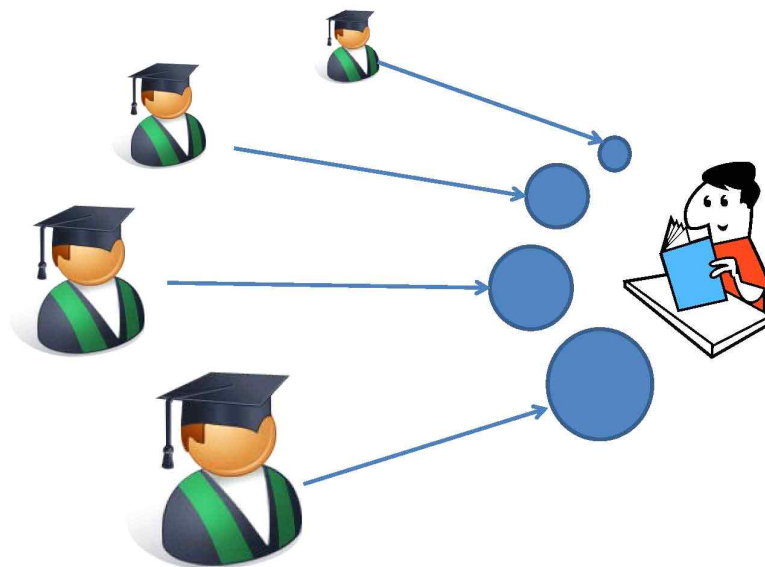
목 차

1. 동양 어휘 정보화의 목적
2. 동양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3. 동양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
4. 동양 어휘 정보의 활용

1.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목적

❖ 전통시대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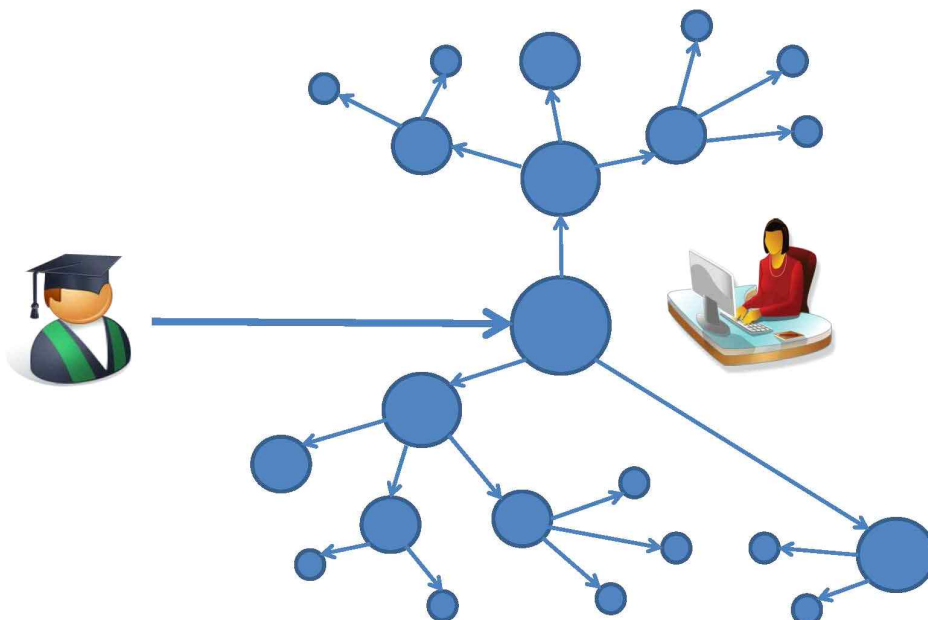
-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저작물



1.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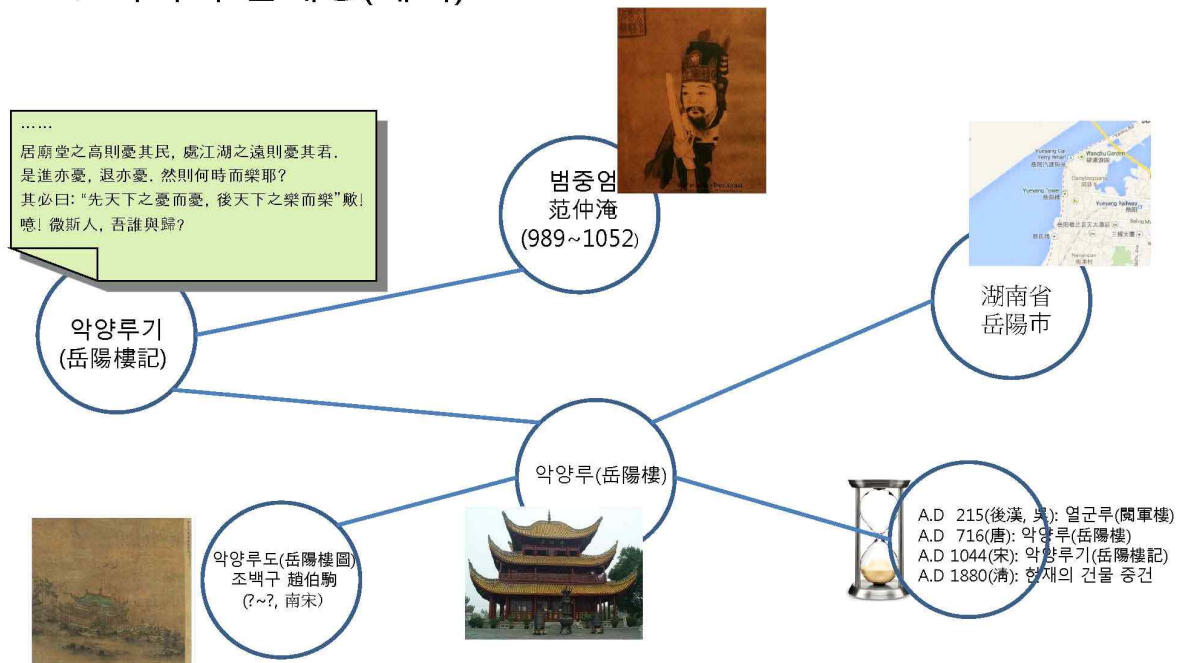
❖ 디지털 시대의 지식

- 다른 지식으로 가는 길을 담고 있는 소통의 교점(交點, N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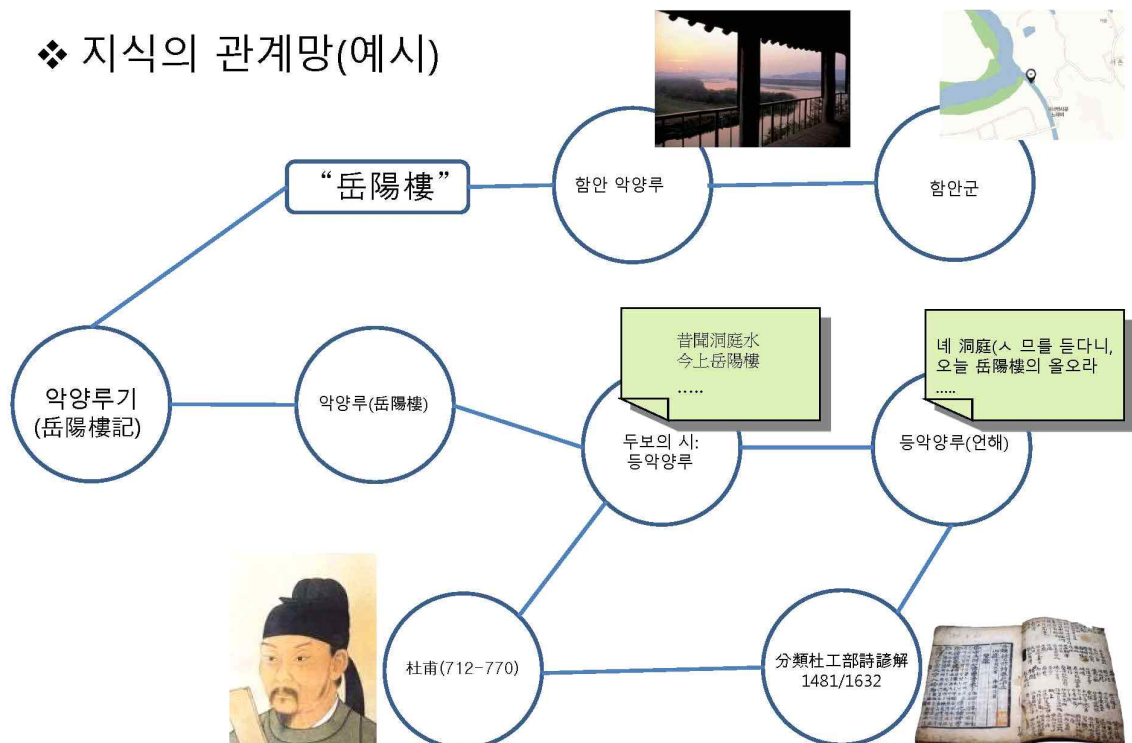
1.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목적

❖ 지식의 관계망(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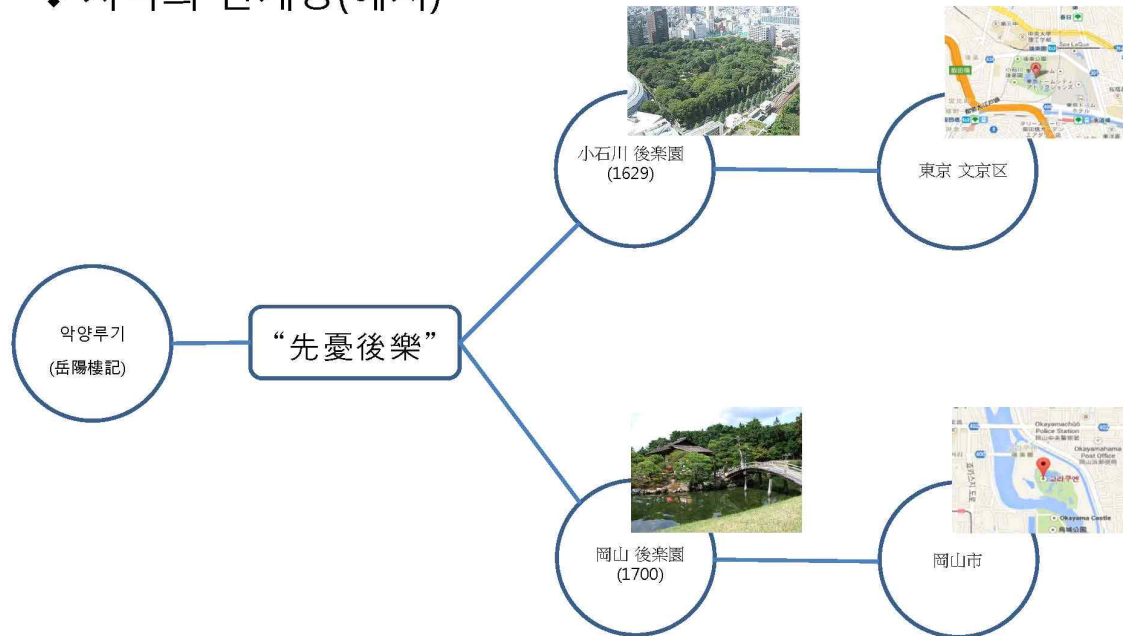
1.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목적

❖ 지식의 관계망(예시)



1.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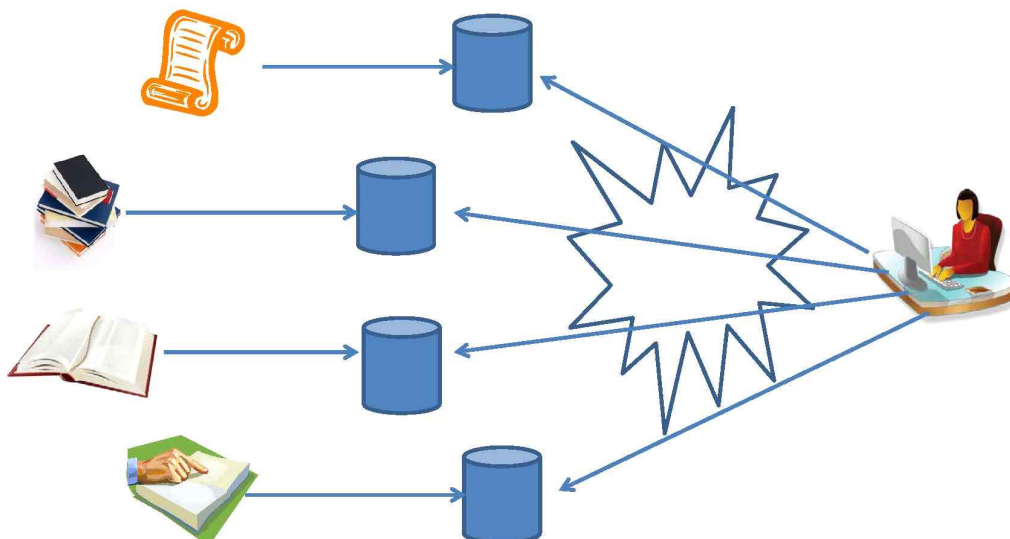
❖ 지식의 관계망(예시)



1.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목적

❖ 현재까지의 고전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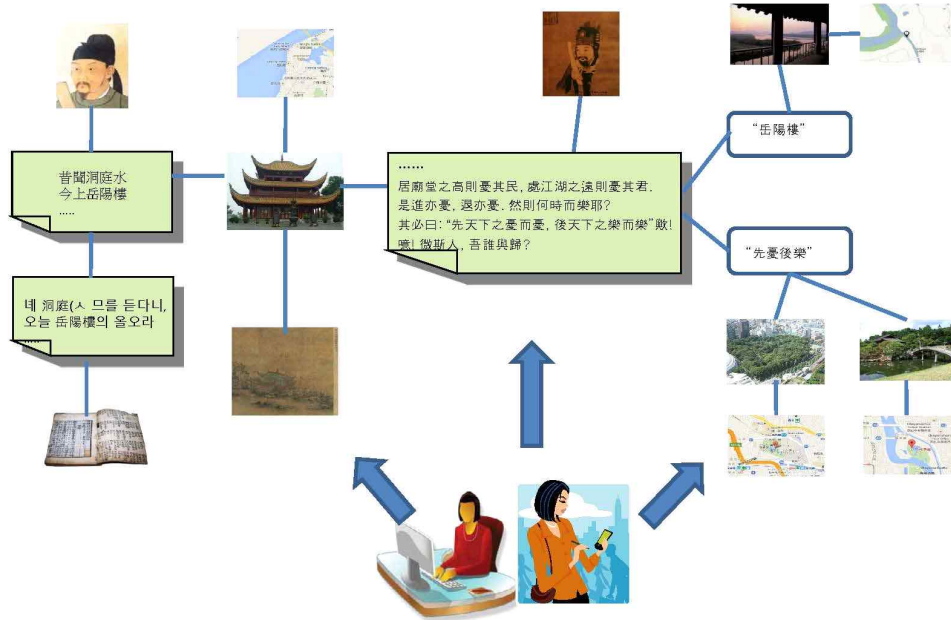
- 전통시대의 지식을 그대로 디지털 매체에 수록
- 관련이 있는 지식은 이용자가 스스로 탐색해야 함



1.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목적

❖ 시맨틱 웹 시대의 디지털 고전 지식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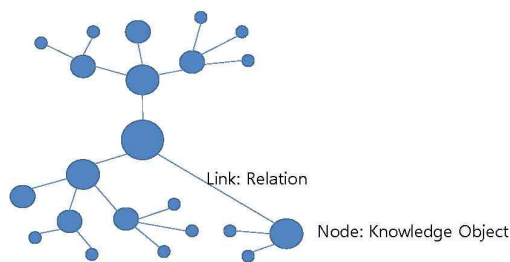
- 고전 지식의 조각들이 다른 지식으로 가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게 하는 것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지식망을 이루는 것

- 지식망(Knowledge Network) = 지식 객체[Node] + 관계[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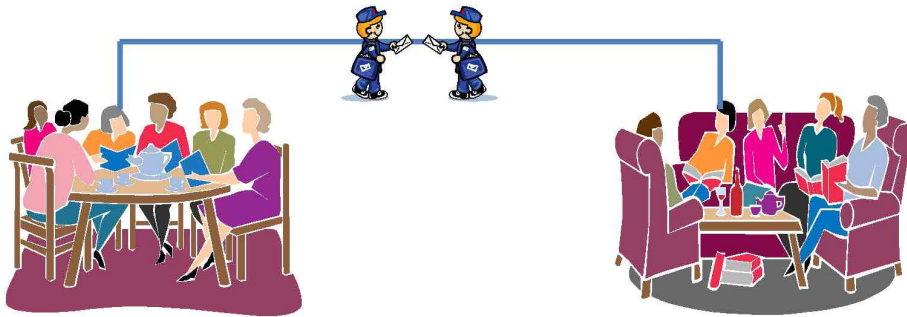
❖ 지식망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과제:

- 지식의 중간 노드를 만들고
-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일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노드(Node, 交點)

-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세계에서 '지식'을 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문서를 '지식 객체'(Knowledge Object)라고 명명.
 - html 문서, 데이터베이스 속의 콘텐츠, 텍스트, 사진, 그림, 동영상, 그래프, 전자지도 상의 위치 표시자 등.
- 객체와 객체가 의미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미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교점(交點, Node)이 필요.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지식 관계망에서 노드의 역할을 하는 것

- 문서
- 문서의 일부분
- 어구
-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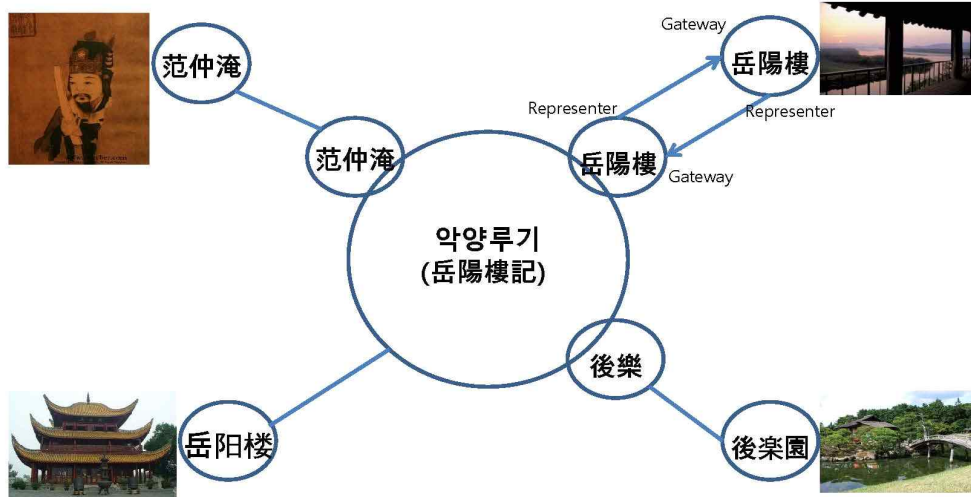
❖ 어휘: 지식 관계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노드

- ❖ “동양 고전 어휘”: 한문 고전의 내용 또는 그와 관련된 지식의 관계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교점(交點, Node)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노드의 역할을 하는 어휘

- 어휘 노드는 지식 객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변자(Representer)와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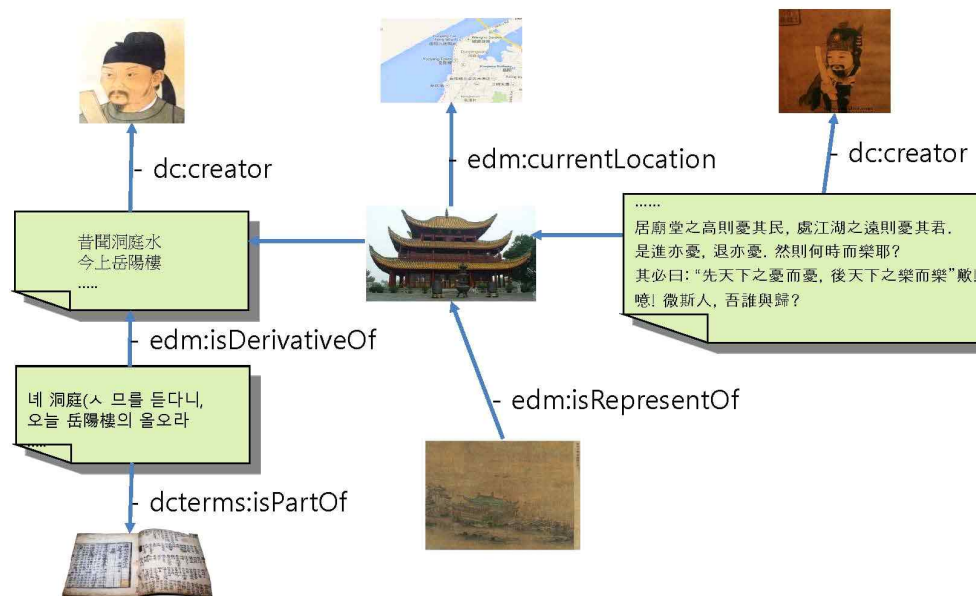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링크(Link, 關聯性)

-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 가장 단순한 링크는 "관계 있음"(is related to)만을 드러내는 것.
- 객체의 성격에 따라 이 링크는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 링크의 속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활용할수록 지식의 관계망은 더욱 정밀해질 수 있음.
- 그러나, 보편적인 관계성의 정의는 불가능하며, 특수한 관점이나 목적을 전제할 경우에만 유의미한 관계성 정의가 가능.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관계성(링크 속성) 예시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관계성 정의 활용 사례: CBDB

- CBDB: [China Biographical Database](http://www.chinabio.org/)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
- 미국 하버드 대학과 중국 北京大學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중국역대인물 데이터베이스
- 7세기~19세기의 인물 **328,000** 명에 관한 정보를 수록 (2013. 10. 기준)
- 인물과 인물의 연관 관계에 대해 500여 종의 관계성을 정의하고 이를 데이터에 적용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참고] CBDB의 인물간 관계성 정의

4	Patron of (= Client was)	是Y의 恩主
5	Patron was (= Client of)	恩主是Y
7	Coalition member of	黨羽為Y
8	Coalition leader of	黨魁為Y
9	Friend of	友
10	Friend in the same graduating class	同年友
11	Impeached	彈劾
12	Impeached by	被Y彈劾
13	Recommended	推薦
14	Recommended by	被Y推薦
15	Opposed or attacked	反對/攻訐
16	Opposed by or attacked by	遭到Y的反對/攻訐
17	Praised or admired by	被Y欣賞/器重
18	Praised or admired	欣賞/器重
19	Menren of	為Y之門人
20	Menren was	門人為Y
21	Coalition associate of	與Y結黨
22	Student of	為Y之學生
23	Student was	學生為Y
24	Directly recruited (bi, zoubi, etc)	辟
25	Directly recruited (bi, zoubi) by	為Y所辟
26	Supported by	得到Y的支持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참고] CBDB의 인물간 관계성 정의

562	servant of	為Y之家僕
563	servant was	家僕為Y
564	family friend was	世交父執為Y
565	Family friend to	為Y之世交父執
566	arranged marriage of	為Y主婚
567	marriage arranged by	Y為之主婚
568	Took as foster son	錄Y為假子(養子)
569	Taken as foster son by	為Y之假子(養子)
570	Claimed to be kin with	與Y攀親戚敘族屬
571	Was claimed kin with	Y與之攀親戚敘族屬
572	edited the writings of	校訂Y之著述
573	writings were edited by	著述由Y校訂
574	female servant of	為Y之婢
575	female servant was	婢為Y
576	presented poetry collection to	獻詩集給Y
577	was presented poetry collection by	被Y獻詩集
578	preface to family biography written by	家傳序由Y所作
579	wrote preface to family biography of	為Y之家傳作序
580	inscription for writings of	為Y之書題詞
581	writings inscribed by	書之題詞由Y所作
582	gave military support to/surrendered to	軍事支持Y
583	was supported militarily/surrendered to by	受Y之軍事支持
584	opposed militarily	軍事對抗Y
585	was opposed militarily by	被Y軍事對抗Y

2.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기본 구상

❖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어휘 정보화 사업

- 한문 고전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갖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 이 교점(交點, Node)을 매개로 디지털 세계에 산재하는 고전 지식의 관계망을 찾아내고,
- 그 관계망 속에서 고전에 대한 학습, 연구, 일상 생활에서의 응용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1)

❖ 한문 고전 어휘 데이터의 수집 · 축적

- 한문 고전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갖는 어휘의 수집
 -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책자로 간행된 한문 관련 공구서(사전, 전문사전, 백과사전 등)는 “고전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갖는 어휘”들의 집성.
 - 이러한 자료 속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 정보화
- 어휘 데이터 가공
 - 수집된 어휘들은 지식 객체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노드로 활용될 것임. 그러므로 노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속성을 개개의 수집 어휘에 부여
 - 표제, 표제의 국가별 이체자 표기, 유형(인명, 지명, 관부명, 관직명, 물명, 개념 · 용어...), 출전(공구서, 위치)
- 어휘 데이터 축적
 - 어휘와 그것의 속성의 묶음을 하나의 객체로 취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고, 그 객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부여.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1)

❖ [예시] 한문 고전 어휘 수집 대상 문헌

사전	어휘수
大漢和辭典	400,743
中文大辭典	346,854
漢語大詞典	333,432
韓國漢字語辭典	88,028
中國人名大辭典	42,547
中國古典詩詞地名辭典	18,189
全宋詞典故辭典	10,295
宋元語錄辭典	9,899
朝鮮人名辭典	9,564
全唐詩典故辭典	7,172
語錄總覽	5,555
中國大百科全書 歷史篇	2,669
中國大百科全書 哲學篇	2,269
中國大百科全書 文學篇	1,964
中國儒學百科全書	1,920
전체어휘수	1,281,100
중복제거 어휘 수	710,419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2)

❖ 국내외 온라인 사전 데이터 연계

- 인터넷 상의 디지털 자원 중 개별 어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데이터를 탐색하여 그것의 URL 또는 URN을 해당 어휘의 새로운 속성으로 집적
- 구축된 어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들에게 “동양 고전 어휘 조회 서비스” 제공
 - ※ 동양 고전 어휘 조회 서비스:
 - 이용자가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한문 텍스트를 제시(입력)하면,
 - 그 텍스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어휘를 추출하여 어휘의 유형, 여러 가지 책자형 사전의 출현 위치, 가용한 온라인 사전의 URN을 알려주는 서비스
 - 온라인 사전 기사가 완전히 개방된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별도의 권한 인증을 요하는 경우에는 URN을 알려 주고, 이용자 개인의 권한으로 최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2)

❖ [예시] 국내외 온라인 고전 어휘 관련 사전

- NKI工具書館 : <http://www.gongjushu.cn/refbook/default.aspx>
- 漢語大辭典&康熙字典 : <http://hd.cnki.net/kxhd/>
- 中文大辭典 : <http://ap6.pccu.edu.tw/Dictionary/>
- 開放康熙字典 : <http://kangxi.adcs.org.tw/>
- 異體字字典 : <http://dict.variants.moe.edu.tw/>
- 漢典 : <http://www.zdic.net>
- 佛門妙供 : <http://www.sutrapearls.org/info/dictionary.htm>
- 佛門辭典 : <http://www.sutrapearls.org/info/dictionary.htm>
- 佛光大辭典 http://www.fgs.org.tw/fgs_book/fgs_drser.aspx
- 道教學術資訊網 <http://www.ctcwri.idv.tw/godking.htm>
- 佛光大辭典 : <http://www.fgs.org.tw/>
- 小學堂 文字學資料庫 : <http://xiaoxue.iis.sinica.edu.tw/>
- 全字庫 : <http://www.cns11643.gov.tw/>
- @nifty辭書 <http://dictionary.nifty.com/>
- 漢字データベース <http://kanji-database.sourceforge.net/>
- 네이버 한자사전: <http://dic.naver.com>
-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고려대장경연구소 불교용어사전: <http://kb.sutra.re.kr/ritk/service/diction/dicSearch.do>
- 한국학자료센터 이두용례사전: <http://www.kostma.net/dic/dicMain.aspx?mT=C>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기초사전 등: <http://www.koreanhistory.or.kr/>
- 국제퇴계학회 대경지부 한자사전: http://www.toegye.ne.kr/dic/dic_first.asp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3)

❖ 한문 고전 텍스트 상에서의 용례 수집 ·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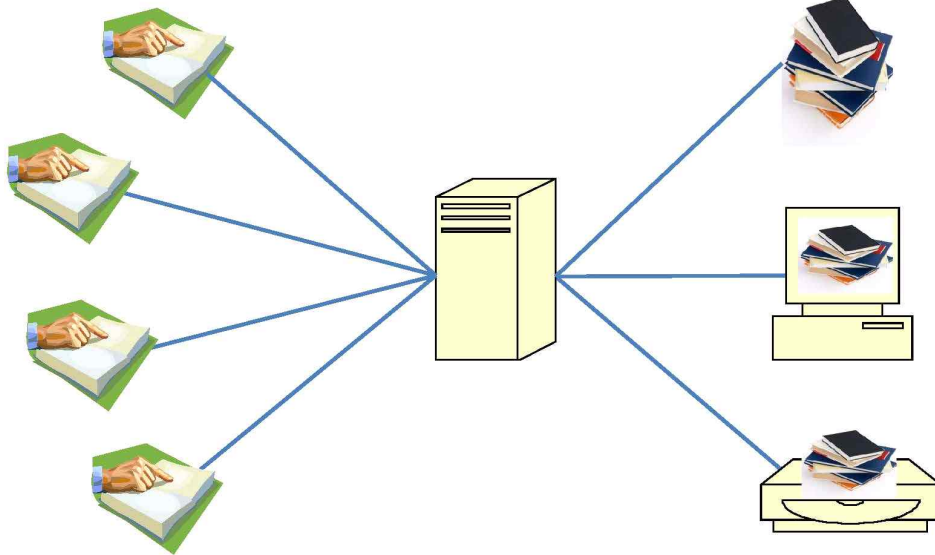
- 대상 텍스트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어휘의 실제 사용 용례를 한문 고전 텍스트 상에서 탐색하는 작업 수행
 -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구축 서비스하는 동양 고전 디지털 데이터를 1차 대상으로 하고, 국내외 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기관간 연구 협력 차원에서 원문 데이터 사용 → 원문 제공처에 용례 데이터 제공) 및 인터넷 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어휘사전DB를 활용하여 대상 문헌 구문 분석 → 중요 어휘의 용례 수집
- 이러한 작업이 단계적으로 수행되면 데이터베이스 상의 어휘들은 아래와 같은 부가 정보를 갖게 될 것임.
 - 표제어 이체자 표기, 어휘 유형 및 책자형 공구서상의 출전 정보
 - 온라인 공구서상의 의미 정의 데이터 URN
 - 중요 고전 텍스트 상에서의 용례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3)

- ❖ 어휘 DB를 매개로 고전 텍스트 구문과 공구서 기사 사이의 관계망 형성
 - 이용자의 활용과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관계성의 정확도 개선

텍스트 상에서의 용례

어휘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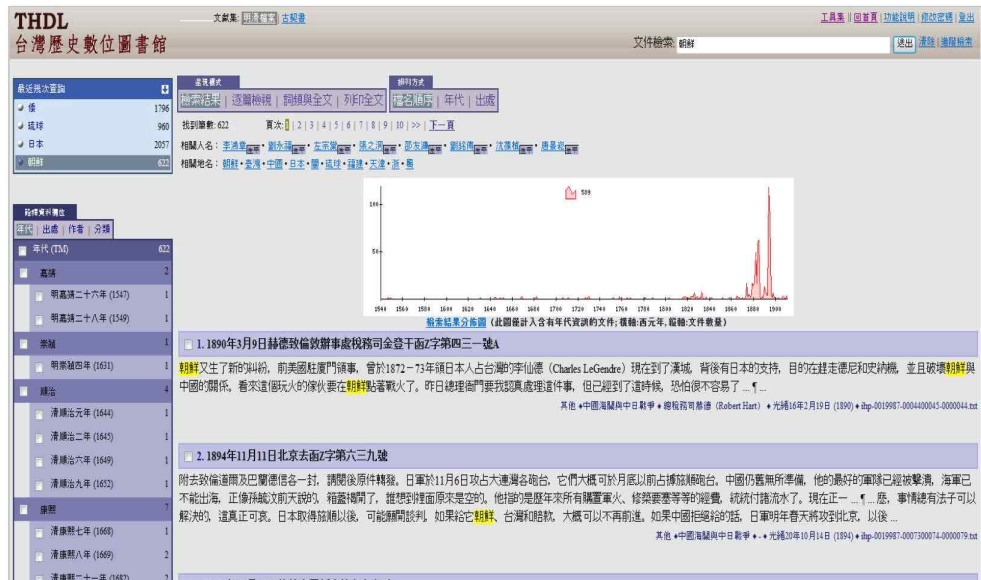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3)

❖ [예시] 국내 고전/역사 관련 디지털 데이터

-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종합DB: <http://db.juntong.or.kr>
-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http://db.itkc.or.kr>
-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http://www.history.go.kr/>
- 서울대 규장각, 고전원문DB: <http://e-kyujanggak.snu.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net>
- 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 전북대·순천대, 호남기록유산: <http://honam.chonbuk.ac.kr/>

臺灣大學
명청시대 타이완 행정문건(明清臺灣行政檔案): 45,000
타이완 지역 계약문건(古契書): 40,000



- 한문으로 쓰인 고전 텍스트 뿐 아니라, 다양 형태로 남아 있는 전통 문화 유산 속에서 의미를 갖는 키워드(=고전 용어=관계망의 노드)를 찾아내고, 그것을 매개로 고전 텍스트와 문화 유산 지식 정보의 관계망을 구축
-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수립하여 보인 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지식 정보를 생산하는 공공기관, 학술연구자들이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유도.
- 향후 이를 통해 구축된 기반 데이터와 수행 성과를 다른 한문 문화권 국가에 공여함으로써,
- 동양 고전 지식의 범세계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4)

❖ 한국의 역사 문화 지식 자원 연계를 위한 한국학 용어 수집

- 다양한 종류의 전통 문화유산 관련 지식에서 관계성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하는 어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현대 한국어 번역, 저술 가운데 한자로 쓰여진 단어의 상당 부분은 그 텍스트 상에서 키워드 역할을 하는 것들.
- 또한 한국 역사 문화 지식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디지털 편찬 과정에서 인명, 지명, 연호, 기관명, 서명 등 고유명사에 식별 기호를 부가한 데이터가 상당량 존재함.
 - 조선왕조실록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동양 고전 어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4)

❖ [예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자 병기 단어 포함 어절 수: 860,176 / 16,341,472(전체) 5.26%
- 문중(文中) 요소-고유명사(한글 표기 포함):
 - 인명: 257,157,
 - 공간: 11,192, 기관: 27,634, 지명: 264,483,
 - 시간: 138,569,
 - 서명: 168,406,
 - 기타(미분류): 5,728
 - 총 873,169 건

❖ [예시] 국역 조선왕조실록

- 한자 병기 단어 포함 어절 수: 5,079,746 / 39,564,623(전체) 12.8%
- 문중(文中) 요소-고유명사(한문 원전 실록에서 조사):
 - 인명: 한국 1,453,767; 중국 72,544; 만주/몽고 25,999; 일본 23,128; 서양 728
 - 지명: 한국/중국 466,600; 만주/몽고 21,985; 일본 36,981; 서양 2,405
 - 서명: 51,261
 - 연호: 6,383
 - 총 2,161,781 건

3.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추진 전략(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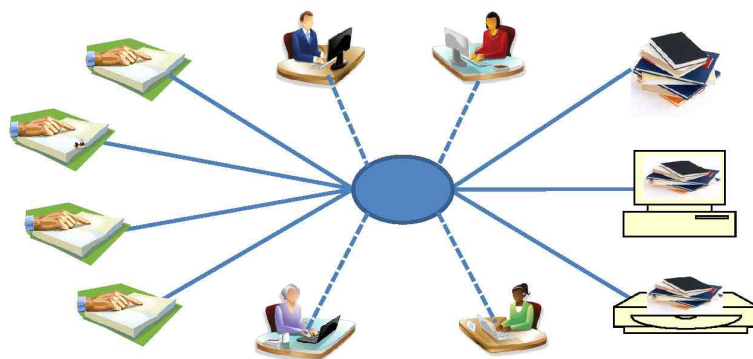
❖ 한국의 역사 문화 지식 자원과 동양 고전(예시)



4. 동양 고전 어휘 정보의 활용

❖ 단기적 활용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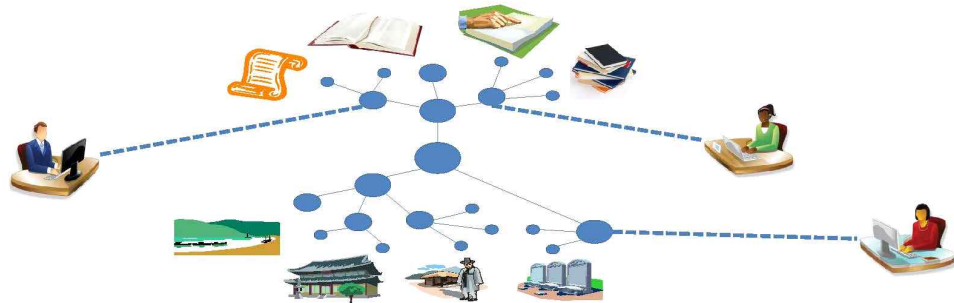
- 한문고전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어휘의 뜻과 용례를 참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로 활용
 ※ Europeana: 유럽 2,000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소장품,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박물관.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콘텐츠도 생산하지 않고, 외부 자원의 연계 서비스만을 제공.
- 이들이 고전 어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흔적을 '실제적인 연계 정보'로 쌓아 관계망의 신뢰도를 증진.



4. 동양 고전 어휘 정보의 활용

❖ 장기적 활용 목표

- 동양 고전 어휘 데이터베이스 수록된 어휘를 매개로 무수한 한문 고전 관련 지식 객체들이 광대한 의미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
- 이 목표는 수많은 고전 연구자와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 고전 어휘 데이터베이스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4. 동양 고전 어휘 정보의 활용

❖ 지식 연계 방법: Semantic Web

- 고립된 지식 객체



함양 거연정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에 있는 누정.
거연정(居然亭)이라는 이름은 주자(朱子)의 셋구 "거연아천석(居然我泉石)"에서 취한 것이다.

.....
1874년에 임헌회(任憲晦) 쓴 거연정기(居然亭記)의 편액이 걸려 있다.



4. 동양 고전 어휘 정보의 활용

❖ 지식 연계 노드 발굴: 관계를 맺게 하는 교점을 찾아서 식별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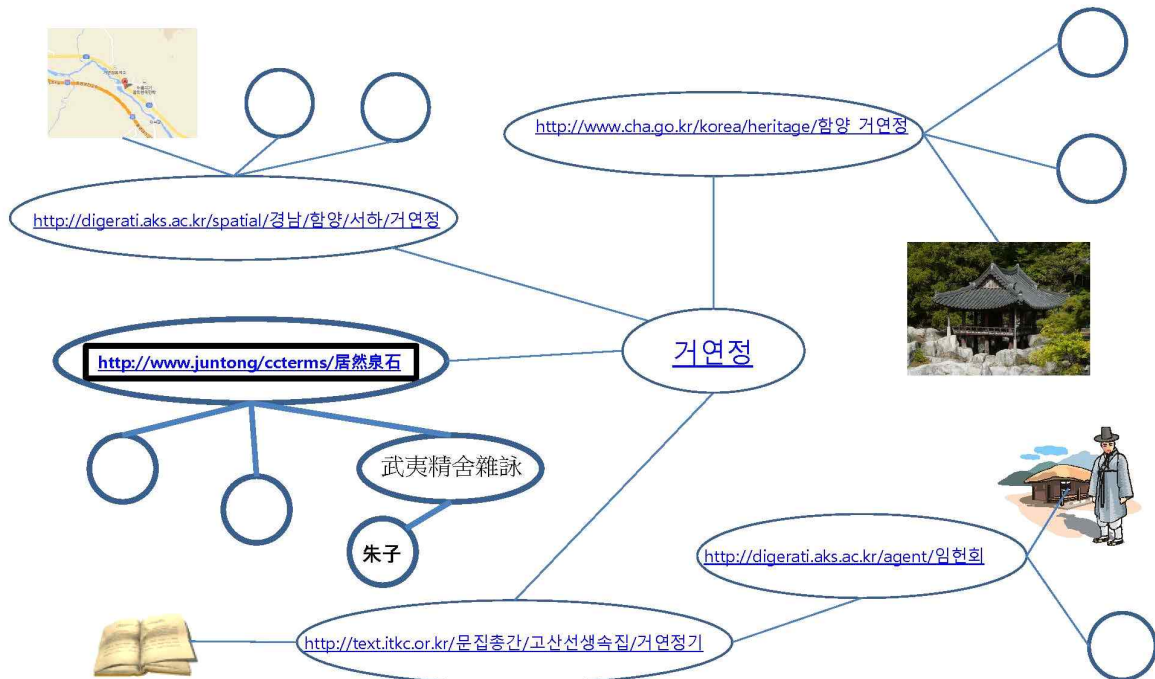
4. 동양 고전 어휘 정보의 활용

❖ [예시] Semantic Web Data (XHTML+RDFa)

```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RDFa 1.0" "http://www.w3.org/MarkUp/DTD/xhtml-rdfa-1.dtd">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ccterm="http://www.juntong.or.kr/ccterm/"
  version="XHTML+RDFa 1.0">
<head>
<title>함양 거연정</title>
<base href="http://www.cha.go.kr/korea/heritage/함양 거연정" />
<meta property="dc:creator" content="문화재청" />
</head>
<body about="http://www.cha.go.kr/korea/heritage/함양 거연정">
<h1>함양 거연정</h1>
<span rel="ccterm:spatialIdentifier" resource="http://digerati.aks.ac.kr/spatial/경남/함양/서하/거연정">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span>
<span>
  에 있는 누정. <br/>
  거연정(居然亭)이라는 이름은 주자(朱子)의 시구
  <cite rel="ccterm:relatedCCT" resource="http://www.juntong/ccterm/居然泉石">
    거연아천석(居然我泉石)
  </cite>
  에서 취한 것이다. <br/>
  <span rel="ccterm:textIdentifier" resource="http://text.itkc.or.kr/문집총간/고산선생속집/거연정기">
    <span about="http://text.itkc.or.kr/문집총간/고산선생속집/거연정기">
      <span property="dc:date">1874년</span>에
      <span property="dc:creator">
        <span rel="ccterm:personIdentifier" resource="http://digerati.aks.ac.kr/agent/임헌회">
          임헌회(任憲晦)
        </span>
      </span>
      <span>가 쓴
      <cite property="dc:title">거연정기(居然亭記)</cite>
    </span>
  </span>
  <span>의 편액이 걸려 있다.
</body>
</html>
```

4. 동양 고전 어휘 정보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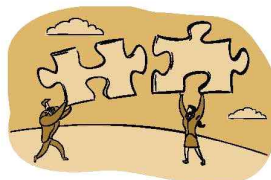
❖ Semantic Web 환경에서 지식 연계망 구현



4. 동양 고전 어휘 정보의 활용

❖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의 협력 체제

- 전통문화연구회: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사업을 통해 '고전 지식의 노드' 역할을 하는 고전 어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 모델 제시
- 고전 연구자, 공공기관, 문화 콘텐츠 편찬자: 고전 어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역사 문화 지식 연계 데이터를 생산
- 정보 서비스 포털, 정보 서비스 기술 전문가: 전통문화연구회와 지식 콘텐츠 전문가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실제적인 시맨틱 웹 (Semantic Web)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기술적 환경 제공.



4. 동양 고전 어휘 정보의 활용

❖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 사업의 의의

- 월드 와이드 웹은 독립된 문서가 넘치는 세계(Web of Documents)에서 의미있는 정보가 서로 연관을 맺는 세계(Web of Data)로 진화하는 과정.
- 다양한 지식 객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여러 나라, 여러 분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동양 고전 어휘 정보화는 한문 고전이라는 영역을 발판으로 그와 같은 지식 소통의 범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
- 한문 문화권의 고전 지식이 소수의 전통문화 애호가의 전유물에 머물지 않고 현대인의 문화 생활 속에 깊숙히 침투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

감사합니다.